

한국목간학회 학술발표회

❖ 일시 : 2022.3.11.(금) 13:50~17:00

❖ 장소 : ZOOM 온라인회의실

일정

13:50~14:00	개회사	이성시(한국목간학회장)
14:00~14:50	경주 왕경의 목간 판독 결과	이재환(중앙대학교)
14:50~15:40	한국 고대 목간의 분류 방안	김재홍(국민대학교)
15:40~16:00	휴식	
16:00~16:50	최근 발견된 중국의 주요 목간	이주현(동아대학교)
16:50~17:00	폐회	

목차

경주 왕경의 목간 판독 결과	3
이재환(중앙대학교)	
한국 고대 목간의 분류 방안	31
김재홍(국민대학교)	
최근 발견된 중국의 주요 목간	50
이주현(동아대학교)	

경주 왕경의 목간 판독 결과

이재환(중앙대학교)

경주 왕경 출토 목간의 판독 결과

이재환(중앙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사라진(?) 목간을 찾아서
 - III. 목간의 상태와 기존 사진의 문제
 - IV. 부호와 異筆, 모서리·측면의 정보
 - V. ‘洗宅’과 ‘龍王’, 그리고 새로운 사찰명
 - VI. 판독안
-

I. 머리말

신라의 王京이었던 경주는 한국 목간 연구의 출발점이 된 지역이다. 1975년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간이 발견되었다. 해당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발견 목간에 대한 논고는 한반도 출토 목간에 대한 최초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¹⁾ 1980년대 중반에는 월성 해자에서 다수의 목간이 출토되고, 1990년대에 경주 황남동 376번지,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등에서 목간이 발견되어, 경주 지역 출토 목간의 양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하지만 신라 목간에 대한 정리 시도는 왕경 목간보다 지방 목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함안 성산산성에 대하여 1991년부터 진행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목간이 출토되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4년 『韓國의 古代木簡』을 발간하고,²⁾ 2006년 그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뿐 아니라 당시까지 알려진 한국 출토 목간 대부분의 컬러 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망라해서 수록하고 고유번호를 붙여, 이후 오랫동안 한국 목간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월성 해자 및 안압지, 경주박물관 부지, 황남동 376번지 등 경주 지역 출토 목간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나,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의 1호 목간이 누락되는 등 정리가 완벽하지 못했다. 아울러 공식적 판독문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여러 판독들을 나열하고 데 그쳤다.

안압지 출토 목간의 경우 2007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新羅文物研究』 創刊號에서 새로운 적외선 사진과 진전된 판독문을 수록하면서 재정리가 진행되었다. 『韓國의 古代木簡』에 빠졌던 발굴조사보고서 1호 목간의 적외선 사진도 제시하였지만, 다른 목간들 일부가 누락되었다. 2009년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 『나무 속 암호 목간』의 도록에도 월성 해자 출토 목간과 안압지 출토 목간 등의 사진과 판독문이 실렸지만, 경주 지역 출토 목간이 망라되지는 않았다.³⁾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1년에 간행한 『韓國 木簡字典』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인왕동 341-3번지 일대의 전 인용사지(현 인왕동사지)에 대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2)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學術調査報告 第25輯)』.

3)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목간을 포함하여 당시까지 알려진 경주 지역 출토 목간의 적외선 사진과 판독문이 수록되었다.⁴⁾ 그러나 여전히 빠진 목간들이 있으며, 수록된 적외선 사진의 질이 기존에 공개된 것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경주 지역에서 목간의 발굴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2012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부지에서 목간이 발견되었으며, 2015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월성 해자 ‘다’구역 1~3호 해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도 다수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2020년 5월에는 경주 구황동 전 황복사지에서 목간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왕경 출토 목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의 제작을 기획하여 고화질 컬러 사진 및 적외선 사진을 새롭게 촬영하고 그 판독을 의뢰하였다. 한국목간학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려 4차에 걸친 온라인 판독회와 2차의 유물 실견을 거쳐 신라 왕경 출토 목간들의 신판독안을 만들었다. 본 발표는 판독안의 새로운 내용들과 판독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보고하는 것이다.

II. 사라진(?) 목간을 찾아서

정리 및 판독의 대상이 될 경주 왕경 출토 목간은 모두 몇 점인가? 목간의 수량 파악이 정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⁵⁾ 먼저 문자의 서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목간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문자가 서사된 경우만을 목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문자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더라도 목흔이 확인된다면 넓은 의미의 문자가 서사되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목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흔의 존재 여부 판단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육안 및 적외선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에 목흔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목흔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목흔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목간류에 포함시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⁶⁾ 그러나 형태만으로 목간류를 특정할 수 없기에,⁷⁾ 목흔의 존재를 목간 여부 판단의 기본 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의가 ‘금후 목간이라는 시각에서 불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⁸⁾이 아님은 물론이다. 현재 목간으로 간주하지 않은 어떠한 목제품(목기)라도 추후에 목흔이나 문자가 확인되면 목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외선 및 컬러 사진과, 실물 관찰을 통해 연구원과 자문단의 확인을 거쳐 목흔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연구소에서 목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촬영한 목제품(목기)들 중 월성해자 8호(한국의고대목간 178), 월성해자 14호(한국의고대목간 180),⁹⁾ 월성해자 27호(한국의고대목간 165),¹⁰⁾ 월성해자 29호,¹¹⁾ 월성해자 30호, 월성해자 31호, 월성해자 32호,

4) 손환일 편저, 2011, 『韓國 木簡字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5)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 23호, pp.20-22.

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月城垓子 發掘調査報告書 II - 고찰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41)』, p.137 각주 5.

7)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19.

8) 각주 2)와 동일함.

9)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목흔이 있으나 읽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앞의 책, p.147), 윤선태,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호, p.91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韓國의 古代木簡』에서는 ‘180. 墨書없는 木簡’으로 소개하였으며, 『韓國 木簡字典』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10) 『韓國의 古代木簡』에는 ‘패인흔적 목간’이라고 소개하였다. 당시에도 목서는 확인되지 않은 듯하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11) 『韓國 木簡字典』의 [月]25이나, 발굴조사보고서에는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바 있다.

월성해자 33호, 월성해자 34호, 월성해자 35호, 월성해자 36호, 월성해자 37호, 월성해자 38호, 월성해자 39호, 월성해자 40호, 월성해자 41호, 월성해자 42호, 월성해자 43호, 월성해자 44호, 월성해자 45호, 월성해자 46호, 월성해자 47호, 월성해자 48호, 월성해자 49호, 월성해자 59호, 월성해자 71호(한국의고대목간 177),¹²⁾ 황남동 376번지 출토 경주42560 (3-3), 국립경주박물관 출토 경주15714는 목흔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목간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1980년대에 출토된 월성해자 목간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목흔이 있는 것을 25점으로 집계하였으나,¹³⁾ 재확인 결과 29~30점 정도로 판단된다.¹⁴⁾ 2015년 이후의 월성해자 신출토 목간은 2017년에 공개된 7점에,¹⁵⁾ 2018년에 발견된 1점과 월성 4호 해자 1653을 더하여 9점이 있다. 그 밖에 국립경주박물관 연결통로부지·미술관부지·남측부지 등에서 총 4점, 황남동 376번지 유적에서 2점, 전인용사지(현 경주 인왕동 사지)에서 1점, 전향복사지 1점이 발견되었다.¹⁶⁾

그런데 경주 출토 목간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출토 목간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는 목흔 존재 여부의 판단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사라진 목간’들의 파악 및 처리가 그것이다. 문자가 서사된 목제품을 모두 목간으로 간주할 경우 목간으로 포함될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출토 14면체 酒甬 주사위는 보존 처리 과정에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현존한다 할지라도 이 주사위를 목간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연구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목간으로 간주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들 중에도 현재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韓國의 古代木簡』에는 목흔의 존재가 확인되는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서 182번부터 242번까지 연번이 붙은 61점이 수록되었다.¹⁷⁾ 이후 2007년 『新羅文物研究』 創刊號에서는 『韓國의 古代木簡』 번호 기준 199·223, 226·230·239, 228·234(上), 231·238, 233·236을 각각 동일 목간의 파편으로 간주하여 199, 226, 228, 231, 233으로 통합하였다.¹⁸⁾ 아울러 발굴조사보고서와 『韓國의 古代木簡』에서 두 조각으로 잘린 하나의 목간이라고 간주해 온 209는 별개의 목간으로 파악하여 분리하였다.¹⁹⁾ 이에 따라 재정리하면, 안압지 출토 목간의 수량은 57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안압지 출토 목간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2011년에 간행된 『韓國 木簡字典』에는 안압지 출토 목간 49점의 판독안과 적외선 사진이 실려 있는데,²⁰⁾

12) 『韓國의 古代木簡』에는 177로서 목서가 있는 목간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번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앞의 책, pp.138-152.

14) 목흔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 밖에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던 55호와 81호는 목흔이 있는 목간들만 수록한 『韓國 木簡字典』에 각각 [月]26과 [月]28로 수록되었다. 이번에 사진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55호의 경우 『韓國 木簡字典』의 적외선 사진 상으로도 목흔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81호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촬영이 필요해 보인다. 88호의 경우도 발굴조사보고서에서 판독이 어렵지만 목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韓國 木簡字典』에는 실리지 않았다. 사진 상으로는 목흔이 인정되지 않으나 적외선 촬영을 시도하여 확인해 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이들의 목흔 여부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수량이 집계될 수 있다.

15) 전경효, 2017,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목간 소개」,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의례와 월성해자 목간(한국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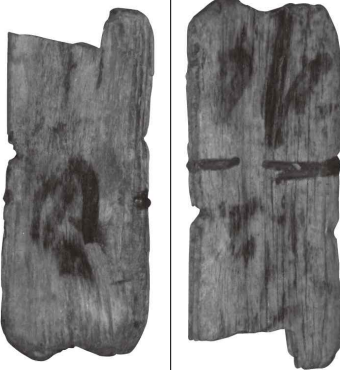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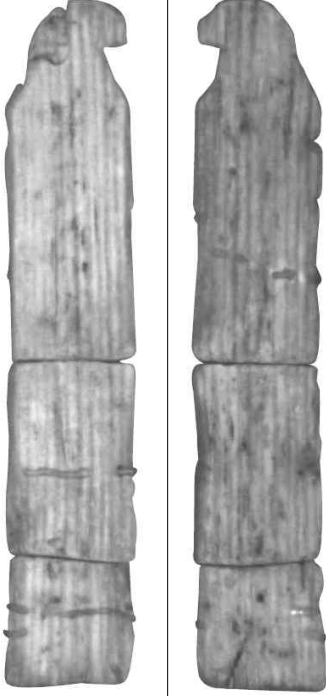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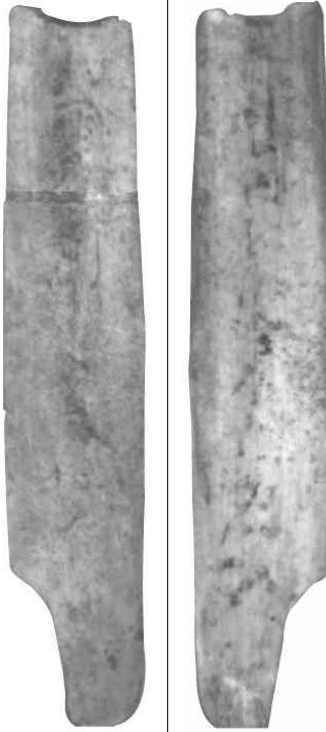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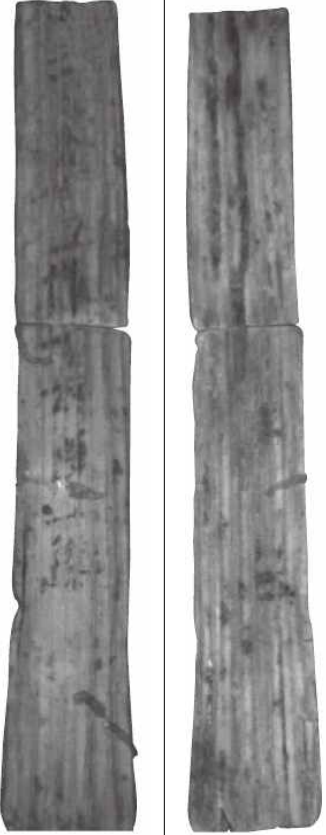
16) 그 밖에 황룡사 남측 도로 유적에서 목간이 1점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적외선 사진이나 판독문이 나와 있지 않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皇龍寺 廣場과 都市-황룡사 대지와 후대 유구 1』 ; 윤재석 편저, 윤용구·이용현·이동주 저, 2022,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주류성출판사, pp.268-269). 이번에도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

17)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앞의 책, pp.210-270.

18) 이러한 결합은 이번 목간 사진 촬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 그런데 이 분리는 이후 『나무 속 암호 목간』이나 『韓國 木簡字典』 등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사진 촬영에서도 두 조각을 하나의 목간으로 간주하였다.

20) 손환일 편저, 2011, 앞의 책.

					
[雁]-40		[雁]-45		[雁]-46	
					
[雁]-47		[雁]-48		[雁]-49	

이 중 [雁]-40, [雁]-45, [雁]-46, [雁]-47, [雁]-48, [雁]-49는 『韓國의 古代木簡』이나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다.

[雁]-47의 경우 문자가 서사된 것이 분명한지 확인이 필요하나, 나머지 5점은 적외선 사진상 묵흔이 충분히 인정된다. 6점 중 『韓國 木簡字典』에서 묵흔 인정을 넘어 판독안을 제시한 것은 다음의 1점이다.

[雁]-40

A : × 外 × (정방향)

B : × 內 × (역방향)

[雁]-46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판독은 가능해 보인다.

[雁]-46

B : × □也 ×

1975년 이래로 알려져 있지 않던 목간 5점~6점이 2011년 시점에 갑자기 확인된 정황은 알 수 없다. 이후 이들의 행방도 묘연하다. 최근 발간된 『한국목간총람』에도 “모두 49점의 적외선 사진을 실었는데, 이 가운데 몇 점은 기존 자료에는 없던 사진자료들이었다”고 언급했을 뿐, 판독안을 제시한 50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진 촬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고, 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1년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므로 충분히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오래 전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안압지 출토 목간들도 있다.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묵흔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4점을 포함하여 51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고 한다.²¹⁾ 이 중 판독문이 제시된 것이 31점이다.²²⁾ 그런데 해당 원고의 집필자도 당시 발견된 목간을 모두 실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자료 20, 21은 각각 ‘「二藥十」’, ‘「(坎)?矩山徒」’라는 유물조사카드의 판독 메모를 옮겨두었을 뿐이며, 圖版에도 빠졌다. 이들이 어째서 실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진 또한 수록되지 않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알려진 목간들은 물론 『韓國 木簡字典』에 추가된 6점 중에도 해당 메모의 판독문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해 볼 만한 것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2는 당시 실견 가능하여 ‘「僧門金□□」’, ‘「金金□□□」’의 판독문과 더불어 사진도 수록되었다.²³⁾ 하지만 20·21과 함께 이후 『韓國의 古代木簡』을 비롯한 도록, 자료집 등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으며, 『韓國 木簡字典』에만 수록된 6점의 목간들과 비교해 보아도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 언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과연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

어쩌면 매우 이른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발굴조사보고서의 ‘第1表 雁鴨

21) 李基東, 1978 「VI. 出土遺物 6. 木簡類」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p.285-288.

22) 확실히 판독이 가능한 것만 제시하였다고 하며, 圖版 상으로 당시에 목서가 확인되는 목간들은 이보다 더 많이 존재하였다. 高敬姬, 1994,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49-52에는 안1294(6-5)(한국의고대목간 229)와 안1293(6-5)(한국의고대목간 194)가 각각 32, 33으로 추가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형태와 내용으로 볼 때 33은 이미 6으로 소개한 목간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 p.189 도판번호 436·437.

池出土遺物 保存處理 品目一覽表'에는 보존 처리를 위해 서울로 운송된 목간이 1차 운송 9점, 2차 운송 43점으로 모두 52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²⁴⁾ 본문에서는 목간 출토 수가 총 46점이라고 하여 6점의 차이를 보인다.²⁵⁾ 이 때의 點數는 파편 하나하나를 계산한 것으로서 경화 처리 후 원형 접착하면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²⁶⁾ 접합에 의해 수량 파악이 변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애초에 서울로 운송되었다는 52점 또한 목간류 출토유물 보고 부분에서 제시한 51점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목간류 출토유물 보고의 수량은 판독문을 제시할 때 접합된 것들에 하나의 번호를 붙인 것으로 보아 파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간별로 파악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발견된 목간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파편 하나하나를 집계한 수량은 51점보다 훨씬 많아야 할 것이나,²⁷⁾ 서울로 운송되었을 당시 수량은 52점으로 1점 많을 뿐이었다. 서울로 보내진 목간의 수는 이전에 파악한 것보다 줄어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존 처리의 고찰 부분에서는 목간류 중 보존처리된 것이 총 38점이라고 하였는데,²⁸⁾ 이것이 접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 10여 점의 차이가 상정된다.²⁹⁾

이처럼 발견으로부터 보존 처리를 위한 운송 과정 사이, 운송 후~처리 전에 각각 목간의 점수가 줄어들고 있음이 엿보인다. 어쩌면 보고서의 20·21·22는 이 때 사라진(?) 것들 중 일부일 수도 있겠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2는 사진이 남아 있고, 21과 22에 대해서 각각 길이 4.3cm×너비 1.8cm와 11.5×3.8×1.5(cm)라는 크기 정보가 있으므로 실물 추적의 단서로 삼을 수 있겠다.³⁰⁾ 20의 경우 '형태는 不明'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으로,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신라 왕경 출토 목간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의 6점과 이 3점의 목간을 찾아낸다면, 발굴을 통해 새로운 목간을 발견하는 것만큼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목간의 상태와 기존 사진의 문제

경주 지역 출토 목간들에 대한 사진 촬영은 이전에도 있었다. 『雁鴨池 發掘調查報告書(圖板編)』에 안압지 출토 목간들의 흑백 사진이 수록되었고, 『韓國의 古代木簡』와 『나무 속 암호 목간』, 『韓國 木簡字典』 등은 경주 지역 출토 목간들의 컬러 사진과 적외선 사진들을 모아 두었다. 『月城垓子 發掘調查報告書 II -고찰-』에는 1980년대에 발견된 월성해자 출토 목간들의 컬러 및 적외선 사진들이 실려 있다. 이 중 『月城垓子 發掘調查報告書 II -고찰-』과 『나무 속 암호 목간』에 수록된 사진들은 『韓國의 古代木簡』에 실린 사진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³¹⁾ 기본적으로 『韓國의 古代木簡』 계통과 『韓國 木簡字典』 계통, 2종의 사진들이 존재하였던 것이다.³²⁾ 그 밖에 안압지 출토 목간의 경우 『新羅文物研究』創刊號의 적외선 사진들이 있다. 이들 자료집·도록의 출간 이후에 발견된 목간들은 각각의 보고 논문들에서 선본의 적외선 및 컬러

24) 金裕善, 1978 「IX. 保存科學的 處理」 『雁鴨池 發掘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432.

25) 위의 논문, p.433.

26) 위와 같음.

27) 圖版 사진을 기준으로 조각을 하나씩 세 보면 대략 76개 정도가 된다.

28) 위의 논문, p.452.

29) 추가적인 접합이 확인되어 수량이 감소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30) 李基東, 1978, 앞의 논문, p.289

31) 『나무 속 암호 목간』의 경우 색상 보정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32) 월성해자 출토 목간은 2017년 신출토 목간의 적외선 촬영 과정에서 기존의 월성해자 목간들도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하니(윤선태, 2018, 앞의 논문, p.81), 세 가지 계통의 사진이 있었던 것이 된다.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국립경주문화재의 신규 촬영 컬러 및 적외선 사진은 기존의 사진들보다 해상도가 높고 보정 처리도 우수하다. 사진으로서의 질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판독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사진, 특히 『韓國의 古代木簡』 계통 사진에는 어느 정도 읽히던 묵선들이 새로운 사진에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³³⁾ 촬영 기술의 발달과 새로 촬영한 사진 자체의 품질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촬영의 문제라기보다 목간 자체의 상태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발견 직후 최대한 빨리 촬영하여 고화질의 컬러 및 적외선 사진을 남겨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월성해자 3호 등 특히 묵흔의 상태 변화가 큰 경우들이 주목된다. 안압지 출토 목간들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해 보인다. 관리 방식이나 보존 처리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보존·관리 방식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보존 처리와 관리, 촬영 방법에 관련한 종합적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초기 촬영 사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가장 이른 적외선 촬영 사진인 『韓國의 古代木簡』 수록 적외선 사진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신규 촬영을 포함한 세 계통의 적외선 사진을 비교할 때, 해당 적외선 사진에는 유독 많은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약하게 남은 묵선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뭇결이나 흠집, 오염과 묵흔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생겨났다. 월성해자 12호(고대목간 153)의 Ⅱ면 세 번째 글자처럼 흠집 부분은 확으로 보이고 새 사진에 보이는 확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정자의 자획 판단에 의해서 혹은 여러 적외선 사진을 합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 1158(79-39+55+63)(고대목간 187)은 여러 파편으로 구성된 목간의 크기 비율을 다르게 만든 예이다.

이처럼 단순히 『韓國의 古代木簡』 계통 적외선 사진에서 확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래는 그러한 확이 있었다가 현재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결국 선본 사진 하나를 찾기보다, 여러 계통의 적외선 사진 및 고화질 컬러 사진 등을 하나하나 비교·대조하고, 실물도 확인함으로써 나뭇결·흠집·오염과 실획을 구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독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도 연구자 간 판독 의견은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IV. 부호와 異筆, 모서리·측면의 정보

기존의 판독이 주로 어떤 문자인지에 주목하였다면, 이번에는 비문자적 정보의 표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단,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월성해자 2호(고대목간 149)의 Ⅳ면 제2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內’와 ‘官’의 판독안이 대립해 오다가, 근래에 署名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⁴⁾ ‘內’ 혹은 ‘官’과 비슷하나 조금 다르며 ‘內’에 加劃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署名·花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단, 署名·花押임을 인정한다 해도 판독안에서의 표기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중국 간독에 나타나는 署名은 원래의 이름 글자를 최대한 석독하여 표기하는 듯하다.³⁵⁾ 하지만 월성해자

33) 월성해자 출토 목간에 대해서 2017년 촬영한 적외선 사진의 묵흔이 『韓國의 古代木簡』 수록 적외선 사진의 묵흔보다 상태가 좋지 않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윤선대, 2018, 앞의 논문, p.81).

34) 김병준, 2018,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중국 출토 고대 행정 문서 자료와의 비교-」, 『목간과 문자』20호, pp.174-175.

35) 凌文超 著, 송진영 譯, 2016, 「長沙吳簡 中の 簽署·省校 및 勾畫符號의 釋例」, 『목간과 문자』17호, pp.135-142.

2호와 같이 원래의 글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태안 해역에서出水된 고려시대 목간·죽간에서도 花押·手決이 확인되었는데, 판독문의 해당 부분에 ‘押·手決’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³⁶⁾ 이렇게 표기할 경우 목간에 실제로 ‘押·手決’이라는 글자가 서사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월성해자 2호 해당 글자가 署名임을 주장한 논고에서는 아예 사진의 해당 부분을 축소해 판독문에 넣었으나,³⁷⁾ 축소된 크기와 배경색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졌다.

署名·花押의 실제 형태는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판독문에서는 署名·花押을 나타내는 부호를 넣어 두고, 구체적인 형태 묘사나 원래 글자의 추정·주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발표의 판독문에서는 일단 署名·花押의 부호로 ‘【】’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래의 글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 안에 표기하면 될 것이다.

한편 목간 자체에 부호가 기록된 사례들도 있다. 경주 1158(79-19+35)(고대목간 198)은 약재와 수량을 기록한 일종의 처방전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약재명들 위에 ‘了’ 형태의 확인부(일본의 合點)가 기입되었음이 지적되었다.³⁸⁾ 본 발표의 판독문에서는 확인부를 ‘√’로 표기하도록 하겠다.³⁹⁾ 월성해자 9호(고대목간 151)의 D면 제16자를 ‘■|’의 부호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⁴⁰⁾ 이번 판독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판독문에는 미상자(□)로 표기하고 소수 의견은 주석으로 달았다.

이번에 새롭게 주장된 부호 혹은 글자로는 ‘𐑦’가 있다. 이것은 중국 簡牘에서 受領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기록하는 부호라고 한다.⁴¹⁾ 월성해자 신출토 목간인 2017-03-임071에 대해서 먼저 해당 부호의 존재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판독 과정에서 2017-03-임071의 마지막 글자는 ‘牛’로 보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안압지 출토 안1290(고대목간 207)의 Ⅱ면 제4자 및 안1293(6-5)(고대목간 194)의 제8자, 월성해자 15호(고대목간 160) A면 마지막 글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독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나 성격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⁴²⁾ 특정한 동물을 가리키는 신라의 國字로 파악한 견해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⁴³⁾ 추후에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해자 23호(고대목간 167)의 D면 첫 글자에 대

『中國簡牘集成』에서는 畫押의 경우 「」 안에 글자를 적어 넣었다(中國簡牘集成編輯委員會 編, 2001, 『中國簡牘集成』 凡例 참조).

36)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목간과 문자』5호, pp.187-188. 판독문 중 해당 부분에 한글로 ‘수결’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임경희·최연식, 2008,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pp.338-339 및 임경희, 2011, 「마도 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목간과 문자』 8호, pp.212-213).

37) 김병준, 2018, 앞의 논문, p.182.

38) 윤선태, 2008, 「新羅의 文字資料에 보이는 符號와 空白」, 『口訣研究』 第21輯, pp.300-301.

‘확인부’라는 표현은 권인한, 2019, 「습서와 낙서, 그리고 부호」, 『문자와 고대 한국 2 : 교류와 생활(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4)』, 주류성출판사, p.550을 따랐다.

3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 p.15 범례에서는 ‘√’를 轉倒符 표기용 부호로 지정한 바 있으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30).

40) 이용현, 2007,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 생활」, 『口訣研究』 第18輯, p.121 및 윤선태, 2008, 앞의 논문, p.283.

41) 김병준, 2018, 「중국측 자료를 통해 본 월성해자 출토 신라 목간」, 27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p.9.

42) 최근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출토 명문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南朝墓의 銘文塼에서도 유사한 글자가 보임이 지적되었다(이병호, 2021,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출토 명문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4, p.106 각주 39). 해당 논고에서는 이를 ‘𐑦’로 표기하고, 사용할 위치나 벽돌의 형태와 관련된 의미로 파악하였다.

43) 윤선태, 2018, 앞의 논문, p.98에서는 이들 글자를 ‘𐑦’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였으나, ‘𐑦’를 간략히 만든 신라식 國字로서 특정한 짐승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다.

해서도 중국 간독에서 시작 부분을 표시하는 부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異筆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안1484(3-2)(고대목간 185)의 경우 A면과 B면이 異筆일 가능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안1294(6-4)(고대목간 208) A면의 제4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또한 위의 세 글자와 異筆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경우 기록에 先後 관계를 상정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안1293(6-4)(고대목간 195)의 I 면 마지막 글자 또한 위의 글자들과 굵기나 필체가 달라 異筆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목간의 面뿐 아니라 面과 面 사이의 모서리, 측면에 나타나는 정보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안1290(고대목간 207)의 I 면 기준 우측면에서 중국 簡牘에 보이는 刻齒와 유사한 의도적 파임이 확인되었다.⁴⁴⁾ 안1290은 刻書 후 墨書한 글자들이 앞뒤 양면에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전에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지만, 앞면과 뒷면의 ‘면’만을 촬영한 사진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측면에 남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왕경 출토 목간 도록을 시작으로 향후 각지의 목간을 정리할 때 모서리·측면의 확인도 진행하여 의미 있는 정보가 있을 때는 측면 사진도 함께 수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V. ‘洗宅’과 ‘龍王’, 그리고 새로운 사찰명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1294(6-6)(고대목간 191)과 안1484(3-1)(보고서 1호), 안1484(3-2)(고대목간 185)는 ‘洗宅’이라는 관부명이 확인되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⁴⁵⁾ 洗宅은 『三國史記』職官志에 內省 소속 및 東宮 소속으로 두 차례 등장하는 관부로서, 景德王代 中事省으로 改稱된 바 있다. 下代 金石文에 보이는 中使省과도 동일한 실체로 판단되며, 唐의 內侍省에 해당하는 관부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⁴⁶⁾ 한편 안압지 이외에도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에서 ‘辛[番]東宮洗宅’이 새겨진 청동접시가 출토되었다.⁴⁷⁾

이번 판독 과정에서 월성해자 출토 목간 중에도 ‘洗宅’ 목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월성해자 10호(고대목간 148)의 E면 마지막 두 글자가 그것이다. 논의 중 제12자는 ‘洗’와 유사하나 좌변이 ‘冫’가 아니라 두 획밖에 보이지 않음이 문제가 되었으나, ‘洗’은 ‘洗’의 이체자로 쓰이기도 한다.⁴⁸⁾ 제13자도 ‘宅’ 형태의 상부가 보여, ‘宅’의 일부일 수 있다. 물론 글자의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洗宅’ 외에 목간 등에서 ‘洗’자가 잘 등장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상정해 볼 만한 가능성이라고 여겨진다. ‘洗宅’이 인정된다면 寺典 大宮土가 洗宅 등에 보낸 문서목간으로 이 목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龍王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목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龍王’ 목간은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人形 木簡에서 ‘龍王開祭’가 釋讀되면서 처음 알려졌고,⁴⁹⁾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 또한 ‘大龍王’으로 내용이 시작하여 龍王을 대상으로 한 祭儀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⁵⁰⁾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출토 경주15596(고대목간 279)에서 역시 ‘龍王’이 판

44) 2019년 8월 23일 한국목간학회 하계 워크숍의 경주박물관 목간 실견 중 서울대학교 김병준 선생님께서 의해 그 존재가 처음 발견되었다.

45) 李基東,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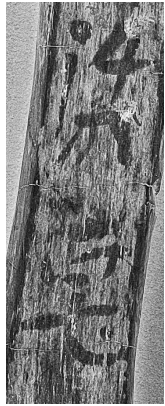
46) 이재환, 2018, 「新羅의 宦官 官府에 대한 試論 -洗宅(중사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목간과 문자』 21호.

47)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東宮衙鑑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접시-」, 『목간과 문자』 20호, pp.196-198.

48) 안1484(3-1)의 ‘洗’ 역시 ‘洗’ 형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49)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龍池 출토 木簡과 祭儀」, 『목간과 문자』 4호 및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목간과 문자』 4호.

50)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 연못에서의 제사의식」, 『목간과 문자』 7호.

				
월성해자 10호 E면 하단	안압지 출토 목간의 ‘洗宅’들			

독된다는 주장도 나왔다.⁵¹⁾ 이번 판독 과정에서도 A면에서 ‘[龍]王’의 판독 의견이 나왔지만, ‘[龍]’ 판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1158(79-66+67) 목간에 대하여 새롭게 ‘龍王’ 목간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목간은 『韓國의 古代木簡』에 233과 236으로 따로 수록되었던 것을 합친 것으로서, 2007년 『新羅文物研究』 創刊號에서 동일 개체임을 확인하여 연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A면 제5자는 ‘龍’으로 판독되었다. 접합된 아랫 부분에 첫 글자(전체로 보아 제6자)는 ‘三’, ‘五’의 의견도 있었으나, ‘[王]’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했다. 東宮官 중에 龍王典이 존재하며, 안압지 발굴 과정에서 ‘辛審龍王’·‘龍王辛審’銘 토기 및 용왕 제사의 흔적으로 해석할 만한 유물들도 다수 발견되었으므로,⁵²⁾ ‘龍王’ 목간의 존재는 자연스럽다.

이 밖에 이번 판독에서 새로운 사찰명과 승려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경주 남산의 전황복사지에 대하여 2016년 6월부터 5차에 걸친 사·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4차 조사의 연지 내부에서 목간이 1점 출토되었다. 발굴자는 ‘上早(혹은 軍)寺迎詔抄彌++一年’이라고 판독한 바 있다.⁵³⁾ 이번 공동 판독회에서는 ‘上[率]寺廻談抄彌^廿一年’이라는 수정된 판독안이 만들어졌다. ‘상술(?)사 회담 사미, 21세’의 의미로 해석된다. ‘상술(?)사’라는 새로운 사찰명과 ‘회담 사미’라는 승려가 확인된 것이다. 이 목간의 구체적인 성격과 언급된 승려에 대한 검토 또한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Ⅵ. 판독안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리된 판독안을 제시한다. 이견이 있었던 글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집계 중으로 다수 의견에 따라 판독안의 글자와 각주 처리되는 의견이 교체될 수 있다. 각 면의 순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차례로 I, II, III 등의 숫자로 면을 표시하였고, 순서 파악이 불가능하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준 사진의 순서에 따라 A, B, C 등 알파벳으로 면을 표시하였다. 「」는 상·하단이 원형대로 남아 있음을, ×는 단부가 파손되었음을 나타낸다. V는 상·하단의 홈을, ◎는 穿孔을 표시한다. 판독 불가능한 글자 중 글자 수 파악이 가능한 경우 한 자씩 □로 표기하였고, 글자 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ㄷㄷ로 표기하였다. 추정한 글자

51) 국립경주박물관, 2011,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pp.122-123 및 이재환, 2011, 앞의 논문, p.101.

52) 이재환, 2011, 앞의 논문, p.109.

53) 김희철, 2022, 「경주 傳皇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新出土 文字資料의 饗宴』, 한국목간학회 제 37회 정기발표회 발표자료집, p.49.

는 [] 안에 넣었다. 異筆·追筆·刻書 등은 『 』 안에 넣고 주석을 달았다. 畵字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1.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출토 목간

경주 1158(79-2) : 고대목간 204

I : 「 □ ×

II : 목흔 없음

경주 1158(79-3) : 보고서 30(도판 451), 고대목간 218, 자전 [雁]32

A : 「 √ 『□』⁵⁴⁾ ×

B : 「 √ 『丙 □』⁵⁵⁾ ×

경주 1158(79-4) : 보고서 도판 460·461, 고대목간 211, 자전 [雁]25

I : 「 √ □⁵⁶⁾□⁵⁷⁾□⁵⁸⁾正月十□

日作□⁵⁹⁾猪助史 」

II : 「 √ 百十瓮⁶⁰⁾ 」

경주 1158(79-5+16) : 보고서 도판 469, 고대목간 231·238, 자전 [雁]44(238)

A : × 刻□ ×

B : × □ ×

경주 1158(79-9) : 고대목간 201

I : 「 □□ 」

II : 목흔 없음

경주 1158(79-12) : 보고서 도판 464·467, 고대목간 189, 자전 [雁]8

I : 「 √ 庚午年三月廿七日作□ 」

II : 「 √ □□□□□□ 」

경주 1158(79-18) : 고대목간 202

I : 「 √ □□ 」

II : 목흔 없음

54) 刻書.

55) 刻書.

56) 辛 의견이 있었다.

57) 卯 의견이 있었다.

58) 年 의견이 있었다.

59) 白, 丙 의견도 있었다.

60) 두 자로 보아 二石으로 본 의견도 있었다.

경주 1158(79-19+35) : 보고서 도판 454·455, 고대목간 198, 자전 [雁]8

A : × 大黃一兩 √□□一兩 √□□一兩 √青袋一兩 [并][麻]一兩
√甘[草]一兩□⁶¹⁾ √胡[同][律]一兩 √□消一兩 √□□三兩 ×
B : × □□一兩 √青木香一兩 √[支][子]一兩 藍□三[分] ×

경주 1158(79-21) : 보고서 도판 462·463, 고대목간 217, 자전 [雁]31

A : × □□ ×
B : × □中 □ ×

경주 1158(79-22) 上 : 고대목간 209(上), 신라문물연구 209-2, 자전 [雁]23(上)

A : × □□ ×
B : × 廣阿□ ×

경주 1158(79-22) 下 : 보고서 26(도판 444), 고대목간 209(下), 신라문물연구 209-1, 자전 [雁]23(下)

A : × [辛]卯年第二汁[八]斗 ×
B : × [辛]卯年第二汁八斗 ×

경주 1158(79-25) : 고대목간 225

I : 「 □□ 」
II : 목흔 없음

경주 1158(79-27) : 보고서 10(도판 416, 417), 고대목간 216, 목간 [雁]30

I : × [三]⁶²⁾月□日作 」
II : × [猪] 醢 □ 」

경주 1158(79-28) : 고대목간 219, 자전 [雁]33

I : × □⁶³⁾□⁶⁴⁾□⁶⁵⁾ ×
II : × □ 缶 ×

경주 1158(79-29) : 보고서 도판 467, 고대목간 197

I : 「 □□□□ 」
II : 「 □□ 」

경주 1158(79-31) : 보고서 도판 474, 고대목간 232

A : × □道□

61) 灸 의견이 있었다.
62) 五 의견도 있었다.
63) 좌변은 女로 보인다.
64) 좌변은 女로 보인다.
65) 좌변은 女로 보인다.

□□ ×
 × □□
 B : □□□
 □□ ×

경주 1158(79-33) : 고대목간 190, 자전 [雁]9

I : × 良儒□□⁶⁶⁾□
 II : × 生鮑十□仇□□□□」

경주 1158(79-37+41) : 보고서 도판 458·459, 고대목간 193, 자전 [雁]12

I : 「 √ 加[火]□醢」
 II : 목흔 없음

경주 1158(79-38+45) : 고대목간 199·223, 신라문물연구 199, 자전 [雁]17

□ □□ 大□ 太子
 I : × [大]□ 大□⁶⁷⁾大□ 大[足] 大[豆]□□大□ □□ ×
 宮
 丁卯十月廿三日□大[大]子子子□[焉] 三人
 II : 목흔 없음

경주 1158(79-39+55+63) : 보고서 18(도판 432·433), 고대목간 187, 자전 [雁]6

「朔 使 □□
 A : 是諸由□□ 歲之[戟]夕
 我飛□⁶⁸⁾是者家宣官處宮」
 「□□
 B : □⁶⁹⁾□⁷⁰⁾□⁷¹⁾□[謝]□□□□
 月月月月飛□⁷²⁾□□」

경주 1158(79-42) : 보고서 27(도판 445·446), 고대목간 237, 자전 [雁]43

A : × □⁷³⁾十二 ×
 B : × □買 ×

경주 1158(79-47+58) : 보고서 11(도판 418·419), 고대목간 222, 자전 [雁]36

I : × 三月廿一日作獐助史缶□ ×

66) 送, 逆 의견이 있었다.
 67) 大豆, 大鳥 의견이 있었다.
 68) 風 의견도 있었다.
 69) 佐, 代 의견이 있었다.
 70) 좌변 是 + 우변 미상
 71) 좌변 是 + 우변 미상
 72) 凡, 風 의견이 있었다.
 73) 元, 六 의견이 있었다.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49) : 고대목간 227

I : × □□□□ ×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0+74+78) : 보고서 8(도판 412·413), 고대목간 221·234(下)·(271), 자전 [雁]35(221)

I : 「 √ 甲寅年壹月仇日作加火魚醢 ×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1+70+71) : 고대목간 228·234(上)·(265)

I : × □□ ×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2) : 보고서 25(도판 442·443), 고대목간 188, 자전 [雁]7

I : 「 √ 丙午年四月 」

Ⅱ : 「 √ 加火魚助史三□⁷⁴⁾ 」

경주 1158(79-53) : 보고서 16(도판 428·429), 고대목간 192, 자전 [雁]11

I : × √ 郎席長十尺細次[杙]三件法次杙七□□ ×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4) : 고대목간 224, 자전 [雁]37

I : × □內⁷⁵⁾ ×

Ⅱ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6)① : 고대목간 235

I : 「 □□ ×

Ⅱ : 목흔 없음

Ⅲ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6)② : 고대목간 240

I : 「 √ □□從 」

Ⅱ : 목흔 없음

Ⅲ : 목흔 없음

Ⅳ : 목흔 없음

경주 1158(79-57) : 보고서 31(도판 452·453), 고대목간 214, 자전 [雁]28

74) 세로획 하나가 보인다. 之 의견과 畝의 일부라는 의견이 있었다. 목흔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75) 丙 의견이 있었다.

A : × [月]四日作 ×

B : × 醯 ×

경주 1158(79-59+61+62+68) : 보고서 도판 469, 고대목간 226·230·239·(268), 신라문물연구 226, 자전 [雁]38(226)

A : 「 √ [此]月十七□[米]□ 」

B : 묵흔 없음

경주 1158(79-65) : 고대목간 241

I : × □□ ×

II : 묵흔 없음

경주 1158(79-73) : 고대목간 242

I : × □□ ×

II

안1289 : 보고서 3(도판 223, 402·403), 고대목간 184, 자전 [雁]3

A : × 韓舍 韓舍 韓舍 文_レ (눈썹과 코, 얼굴전체, 사람의 눈) ×
舍 舍 舍 舍 舍 天寶十一貳壬辰十一月

B : × 韓舍 ×
韓舍 韓舍 韓舍 韓舍 天寶寶[寶]寶

안1290 : 보고서 29(도판 449·450), 고대목간 207, 자전 [雁]21

I : × 九月五日□和五十六□

□『辛』⁷⁶⁾ □ ×

II : × 『□坪捧丰百廿一品上』⁷⁷⁾ ×

※ I 면 기준 우측면에 刻齒일 가능성이 있는 파임들이 존재함.

안1291(3-1) : 보고서 도판 470, 고대목간 203

I : 「 √ □□ √ 」

II : 묵흔 없음

안1292(3-1) : 보고서 도판 473, 고대목간 200, 자전 [雁]18

I : × ◎ 辛[審]⁷⁸⁾

美 」

안1292(3-2) : 보고서 17(도판 430·431), 고대목간 186, 자전 [雁]5

「 阿□⁷⁹⁾ 元万⁸⁰⁾左

76) 刻書한 뒤 墨書.

77) 刻書한 뒤 墨書.

78) 番 의견도 있었다.

A : 隅宮北門迺 □⁸¹⁾宮西門迺
 才老⁸²⁾右⁸³⁾ □吐下右⁸⁴⁾」
 「 三巴⁸⁵⁾左⁸⁶⁾ 小巴乞左
 B : 東門迺 開義門迺
 金老右 』

안1292(3-3) : 보고서 14(도판 424·425), 고대목간 206, 자전 [雁]20

A : 「 剋□⁸⁷⁾抱⁸⁸⁾[樽]耕慰
 璧□琴現渠⁸⁹⁾ 』
 B : 「 憂□⁹⁰⁾□[送]□毛⁹¹⁾□⁹²⁾□
 是法□□罪 』

안1293(6-1) : 보고서 9(도판 414·415), 고대목간 220, 자전 [雁]34

I : 「 √ [丁][亥]年二月八日□□ 』
 II : 묵흔 없음

안1293(6-2) : 보고서 13(도판 422·423), 고대목간 213, 자전 [雁]27

A : 「 √ 策事門思易門金 』
 B : 「 √ 策事門思易門金 』

안1293(6-3) : 보고서 12(도판 420·421), 고대목간 215, 자전 [雁]29

I : × 十一月廿七日入□⁹³⁾赤 ×
 II : × 魚⁹⁴⁾助史六十□⁹⁵⁾ ×

안1293(6-4) : 보고서 24(도판 440·441), 고대목간 195, 자전 [雁]14

I : 「 √ [朔]三日作□醢瓮『□』⁹⁶⁾ 』

79) [召] 의견도 있었다. 아랫 부분은 깨져 나갔다.

80) 方 의견도 있었다.

81) [閣] 의견도 있었다.

82) 者 의견도 있었다.

83) 左 의견도 있었다.

84) 左 의견도 있었다.

85) 毛 의견도 있었다.

86) 在 의견도 있었다.

87) 熟, 藝 의견이 있었다.

88) 犯 의견도 있었다.

89) 미상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90) [爲] 의견이 있었다.

91) 壬 의견도 있었다.

92) 四, 內 의견이 있었다.

93) [白] 의견도 있었다.

94) □小의 두 글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95) 言 의견도 있었다.

96) 百 의견이 있었다. 위의 글자들과 굵기나 필체가 달라 追記나 서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Ⅱ : 목흔 없음

안1293(6-5) : 보고서 6(도판 408·409), 고대목간 194, 자전 [雁]13

I : 「 √ 甲辰三月三日治⁹⁷⁾五藏 」

Ⅱ : 목흔 없음

안1293(6-6) : 보고서 5(도판 406·407), 고대목간 212, 자전 [雁]26

I : 「 √ 庚子年五月十六日 」

Ⅱ : 「 √ 辛[番]猪助史缶 」

안1294(6-1) : 보고서 4(도판 404·405), 고대목간 182, 자전 [雁]1

I : (정방향) × 壹貳參肆伍 」

Ⅱ : (역방향) 「 策事 ×

Ⅲ : (역방향) 「 寶應四年 ×

Ⅳ : 목흔 없음

안1294(6-2) : 보고서 19(도판 434·435), 고대목간 205, 자전 [雁]19

A : 「 重兮等處言 ×

B : 「 □□□□ ×

C : 「 前 ×

D : 「 □ ×

E : 「 □□□ ×

F : 「 □□□□ ×

안1294(6-3) : 보고서 23(도판 447·448), 고대목간 196, 자전 [雁]15

I : 「 √ 南瓮汲上叶十三斗 ×

Ⅱ : 목흔 없음

안1294(6-4) : 보고서 23(도판 438·439), 고대목간 208, 자전 [雁]22

A : 「 『阿膠什』⁹⁸⁾不⁹⁹⁾受¹⁰⁰⁾反□¹⁰¹⁾ ×

B : 「 大¹⁰²⁾□□□□□省□ ×

안1294(6-5) : 고대목간 229, 자전 [雁]39

I : 「 召彡代 √ 」

Ⅱ : 「 奉太子君 √ 」

Ⅲ : 「 前夷□□ √ 」

97) 𠂔 의견도 있었다.

98) 아래 글자들과 異筆로 보인다.

99) 分 의견도 있었다.

100) 丁 의견도 있었다.

101) 外, 朴 의견도 있었다.

102) 火 의견도 있었다.

Ⅳ : 목흔 없음

안1294(6-6) : 보고서 2(도판 400·401), 고대목간 191, 자전 [雁]10

A : × □¹⁰³⁾洗宅家 ×

B : × □¹⁰⁴⁾洗宅家 ×

안1484(3-1) : 보고서 1(도판 398·399)

Ⅰ : × 洗宅白之二典前四□子頭身沐浴□□木松茵 」

Ⅱ : × □□□入日□¹⁰⁵⁾□ 」

Ⅲ : × 十二月廿七日典大舍 思林 」

안1484(3-2) : 보고서 15(도판 426·427), 고대목간 185, 자전 [雁]4

A : 「 √ 辛番洗宅[藏]□瓮一品件¹⁰⁶⁾上 」

B : 「 √ 云迷急使¹⁰⁷⁾條高城醯缶¹⁰⁸⁾ 」

안1484(3-3) : 보고서 7(도판 410·411), 고대목간 210, 자전 [雁]24

Ⅰ : 「 √ 乙巳年正月十九日作日□¹⁰⁹⁾ 」

Ⅱ : 「 √ □水十¹¹⁰⁾瓮 」

안1158(79-66+67) : 고대목간 233·236, 신라문물연구 233, 자전 [雁]41(233)·[雁]42(236)

A : × 巨¹¹¹⁾□¹¹²⁾□¹¹³⁾□¹¹⁴⁾龍[王]¹¹⁵⁾仗¹¹⁶⁾□ ×

B : × 匚□瓮冊□[人]¹¹⁷⁾□¹¹⁸⁾匚□ ×

보고서 도판 456·457, 고대목간 183, 자전 [雁]2

Ⅰ : 「 √ 匚□ [月]廿一日□¹¹⁹⁾北¹²⁰⁾箱¹²¹⁾ ×

Ⅱ : 「 √ 五十五□□□□ ×

103) 受 의견이 있었다.

104) 受 의견이 있었다.

105) 杜 의견도 있었다.

106) 仲 의견도 있었다.

107) 得 의견도 있었다.

108) 『』안은 異筆.

109) 豕 의견이 있었다.

110) 斤, 分 의견도 있었다.

111) 巴 의견도 있었다.

112) 缶 의견이 있었다.

113) 冊, 卅 의견이 있었다.

114) 六, 云 의견이 있었다.

115) 三, 正 의견이 있었다.

116) 丈 의견도 있었다.

117) 又 의견도 있었다.

118) [龍], 剖, 都 의견이 있었다.

119) 上, 五, 工 의견이 있었다.

120) 廿, 於 의견도 있었다.

121) 廂 의견도 있었다.

Ⅳ : 목흔 없음

월성해자 6호 : 고대목간 154, 자전 [月]6

A : × □□□朔朔朔朔 ×

B : × [朔][朔]□¹³⁶⁾□ ×

C : × □一□¹³⁷⁾日□□□□□ ×

월성해자 7호 : 고대목간 175, 자전 [月]7

I : × □□¹³⁸⁾□[茂] √ 」

Ⅱ : 목흔 없음

월성해자 9호 : 고대목간 151, 자전 [月]8

A : 「 □□□上里□¹³⁹⁾受 □¹⁴⁰⁾南¹⁴⁰⁾上里今^受 阿今里^不 □¹⁴¹⁾上里^不 」

B : 「 □□□□□里^受无¹⁴²⁾祝^[受]□¹⁴³⁾□^受[開][池]^受赤里^[受]□□不有□□不有□□」

C : 「 □¹⁴⁴⁾□南川^[受] □¹⁴⁵⁾□¹⁴⁶⁾□¹⁴⁷⁾□□□□北□多¹⁴⁸⁾比力^{不有}□□□¹⁴⁹⁾□¹⁵⁰⁾□¹⁵¹⁾」

D : 「 □□里^受伐□¹⁵²⁾里^受赤居伐¹⁵³⁾受麻支^受□¹⁵⁴⁾牟喙仲里^受新里^受上里^受下里^不□」

월성해자 10호 : 고대목간 148, 자전 [月]9

A : × □[事]□□¹⁵⁵⁾□□□□此時四 」

B : × 田至[界]□□□□□宥¹⁵⁶⁾ 」

C : × 還不后¹⁵⁷⁾□¹⁵⁸⁾ 」

D : × 走皮¹⁵⁹⁾[符][先]¹⁶⁰⁾ 」

136) 月 의견이 있었다.

137) 三, 廿一 의견이 있었다.

138) 受, 實, 道 의견이 있었다.

139) 今 의견도 있었다.

140) 목흔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141) ++ + 广의 형태이다.

142) 尤 의견도 있었다.

143) 餘, 除 의견이 있었다.

144) 仇 의견이 있었다.

145) 좌변이 ‘ㄸ’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146) 里 의견도 있었다.

147) 支, 里 의견도 있었다.

148) 男, 号 의견도 있었다.

149) 里 의견도 있었다.

150) 不, 今 의견도 있었다.

151) [有] 의견도 있었다.

152) 品, 宿 의견도 있었다.

153) 미상 의견도 있었다.

154) ‘■’의 기호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155) 麻 의견이 있었다.

156) 미상자로 본 의견이 있었다.

157) 后, 在, [舌] 의견이 있었다.

158) 斤, 今 의견이 있었다.

159) 支 의견도 있었다.

160) 告 의견이 있었다.

E : × 寺典大宮¹⁶¹)士等敬白□¹⁶²)典利¹⁶³)洗¹⁶⁴)□¹⁶⁵) 」

F : × □□等□□¹⁶⁶)□□場□ 」

월성해자 11호 : 고대목간 152, 자전 [月]10

A : × □□□ 」

B : × □□¹⁶⁷)廩□ 」

C : × □□ 」

D : × 목흔 없음

월성해자 12호 : 고대목간 153, 자전 [月]11

I : 「 四月一日典太等敎事 」

II : 「 內苦¹⁶⁸)爲故爲□□¹⁶⁹)[事]□¹⁷⁰) 」

III : 「 □□ 」

월성해자 13호 : 고대목간 161, 자전 [月]12

A : 「 乙勿□¹⁷¹)□□¹⁷²) ×

이외 면 목흔 없음

월성해자 15호 : 고대목간 160, 자전 [月]13

A : 「 □¹⁷³)沙喙巴分¹⁷⁴)卅 」

B : 「 □¹⁷⁵)吉¹⁷⁶)□¹⁷⁷)□□□¹⁷⁸) 」

※ B면에는 인위적 굽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월성해자 16호 : 고대목간 157, 자전 [月]14

A : ×

□六¹⁷⁹)

161) 官, 客 의견이 있었다.

162) 吹, 漆 의견이 있었다.

163) 前 의견이 있었다.

164) 先, 老 의견도 있었다.

165) 宅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宀가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166) 可, 何 의견이 있었다.

167) 芸 의견도 있었다.

168) 若 의견도 있었다.

169) 敎 의견도 있었다.

170) 之 의견도 있었다.

171) 小, 卅, 卅 의견도 있었다.

172) 목흔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173) 叩 의견이 있었으며, 命의 하부일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174) 分으로 보기에는 특이한 형태로서 及, 以라는 의견도 있었다.

175) 只, 入, 丈 의견이 있었다.

176) 者, 若 의견도 있었다.

177) 過, 遷, 逼 의견이 있었다. 두 글자로 나누어 □廻로 본 의견도 나왔다.

178) 事 의견이 있었다.

179) 亢 의견도 있었다.

□□
 × □ ×
 [喙]化¹⁸⁰⁾□
 負¹⁸¹⁾[喙]
 ×
 B : ×
 □¹⁸²⁾□¹⁸³⁾小舍
 × [兮]□¹⁸⁴⁾人 ×
 □也□
 ×

※ A면에는 약 3cm, B면은 약 2cm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선이 새겨져 있다.

월성해자 17호 : 고대목간 174, 자전 [月]15

I : 「 咏字¹⁸⁵⁾作之¹⁸⁶⁾ ∨ ×

II : 목흔 없음

월성해자 18호 : 고대목간 155, 자전 [月]16

A : 「 □□□¹⁸⁷⁾□¹⁸⁸⁾□ ×

B : 「 石¹⁸⁹⁾兮¹⁹⁰⁾□¹⁹¹⁾[仁]□¹⁹²⁾□ ×

C : 「 □□ ×

월성해자 19호 : 고대목간 168, 자전 [月]17

A : × □秃石¹⁹³⁾[地]¹⁹⁴⁾ㄷ¹⁹⁵⁾ ×

土¹⁹⁶⁾□¹⁹⁷⁾人爲而□

B : × □廿九[日]□¹⁹⁸⁾□ ×

□□□¹⁹⁹⁾□²⁰⁰⁾

180) 凡 의견이 있었다.

181) 須 의견이 있었다.

182) [以], [吹] 의견이 있었다.

183) 左 의견이 있었다. 두 글자로서 太子일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184) 夫, 大의 의견이 있었다.

185) 差의 이체자에 해당한다.

186) 중복 부호(=, 々)라는 의견도 있었다.

187) [ㅌ], 是 의견이 있었다.

188) 兮 의견이 있었다.

189) — 획이 없는 石이라는 의견과 첫 획이 있는 石이라는 의견이 모두 제기되었다.

190) 미상자로 본 의견도 있었다.

191) 兮, 喙 의견이 있었다.

192) 兮, 喙 의견이 있었다.

193) 不 의견도 있었다.

194) 城 의견도 있었다.

195) 의도적으로 칠하여 지운 듯한 모습이 보인다.

196) 工 의견도 있었다.

197) 尺 의견도 있었다.

198) 值, 然 의견이 있었다.

월성해자 20호 : 고대목간 169, 자전 [月]18

I : × □子年十[月] ×

II : × □作□²⁰¹⁾和[內]²⁰²⁾ ×

월성해자 21호 : 고대목간 159, 자전 [月]19

A : × □□ ×

B : × □□即

□□□ ×

월성해자 22호 : 고대목간 158, 자전 [月]20

A : × 第八巷²⁰³⁾第廿三大今麻新五衣節草[辛]²⁰⁴⁾ ×

B : × [奈]食常□²⁰⁵⁾第一巷²⁰⁶⁾[第]七²⁰⁷⁾大今□²⁰⁸⁾ ×

월성해자 23호 : 고대목간 167, 자전 [月]21

A : 「 天雄二兩²⁰⁹⁾ 蒿²⁰⁹⁾ ×

B : 「 □□ ×

C : 「 □□ ×

D : 「 □²¹⁰⁾ □²¹¹⁾ □²¹²⁾ 赤²¹³⁾ □²¹⁴⁾ □ ×

월성해자 24호 : 고대목간 162

A : 「 □□ 」

B : 「 □□ 」

월성해자 25호 : 고대목간 (181)

A : 「 □ 」

B : 목흔 없음

199) 좌변은 ㄷ 혹은 ㄴ. 初 의견이 있었다.

200) 正 의견이 있었다.

201) 우변은 欠. 吹 의견이 있었다.

202) 하단부가 결실되어 확실하지 않다.

203) 卷 의견도 있었다.

204) 立, 帝, 衆 의견이 있었다.

205) 時, 听 의견이 있었다.

206) 卷 의견도 있었다.

207) 十 의견도 있었다.

208) [麻], 衣 의견이 있었다.

209) 蒿 의견도 있었다.

210) 藥 의견이 있었으며, 글자가 아니라 시작을 표시하는 부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11) 우측은 刂이다. 劍, 刻, 割 의견이 있었다.

212) 子 의견 및 글자가 아닌 공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13) 有 의견도 있었다.

214) 書 의견이 있었다.

월성해자 26호 : 고대목간 164, 자전 [月]23

A : × □ 遺□²¹⁵⁾□²¹⁶⁾毛道道使岑然然□ ×

B : × □ □ ×

월성해자 28호 : 고대목간 166, 자전 [月]24

A : 「 □ □ 」

B : 목흔 없음

월성해자 58호 : 고대목간 170, 자전 [月]27

A : 「 □ □ ×

B : 「 □ □ ×

※ 上·下가 명확하지 않다.

월성해자 87호 : 고대목간 176, 자전 [月]29

A : 「 □ □²¹⁷⁾ ×

B : 목흔 없음

월성해자 101호 : 172, 자전 [月]30

A : × □ ×

B : 목흔 없음

월성해자 105호 : 고대목간 171, 자전 [月]31

A : 「 年 ×

B : 목흔 없음

※ 월성해자 구출토 목간 중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던 55호와 81호는 목흔이 있는 목간들만 수록한 『한국 목간자전』에 각각 [月]26과 [月]28로 수록되었다. 이번에 사진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55호의 경우 『한국 목간자전』의 적외선 사진 상으로도 목흔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81호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촬영이 필요해 보인다. 88호의 경우도 발굴조사보고서에서 판독이 어렵지만 목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韓國 木簡字典』에는 실리지 않았다. 사진 상으로는 목흔이 인정되지 않으나 적외선 촬영을 시도하여 확인해 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우선은 신규 촬영 사진이 없으므로 판독을 보류하였다.

2016-05-임069(병오년) : 윤선태 新1호, 전경효 임069(2016)

「 功以受□²¹⁸⁾[荷]²¹⁹⁾四²²⁰⁾煞功十二以八十四人□²²¹⁾棘山[走]入葱²²²⁾□

215) 稱, 構, 補 의견이 있었다.

216) 稱, 構, 補 의견이 있었다.

217) 목흔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다.

218) 沝, 波 의견이 있었다.

219) [衍] 의견도 있었다.

220) 曰, 日, 因 의견도 있었다.

221) 좌변을 是로 보아 題로 판독한 의견도 있었다.

A：受一伐戊戌年往留丙午年干支[受]

留二

×

[illegible]

B : 吉²²³⁾[拿]村行兮²²⁴⁾□²²⁵⁾□□一吉□

□226)□□□□□[長]谷□ ×

2016-09-임023 : 윤선태 신7호, 전경효 임023(2016)

I : × 盛 ×

Ⅱ : 목_은 없_음

2016-12-임392(백견) : 윤선태 신2호, 전경효 임023(2016)

× 前²²⁷⁾

I : □²²⁸⁾小舍敬呼白遣 居生小烏之

宿二言之 此二□²²⁹⁾官言長 V」

Ⅱ : 목흔 없음

2016-12-임418 (‘周公智’ 목간) : 윤선태 신3호, 전경효 임418(2016)

I : 「典中大等敬□²³⁰⁾沙喙及伐斬典前 ×

Ⅱ：「阿尺[山]□[舟]□[至][若]²³¹⁾□□²³²⁾□²³³⁾[事]²³⁴⁾×

Ⅲ：「急□²³⁵」爲在之 ×

IV : 「 文人周公智吉士・×

2017-02-임001 (‘米’) : 윤선태 신4호, 전경효 임001(2017)

A : 「兮智尔公節别白[作]²³⁶⁾第□ ×

B: 「米卅²³⁷⁾斗酒作米四斗并卅²³⁸⁾四斗[瓮]此²³⁹⁾□²⁴⁰⁾ ×

C: 「公取□□□²⁴¹⁾[在]²⁴²⁾□. ×

222) 惣 의견도 있었다.

223) 之, 古 의견도 있었다.

224) 주 의견도 있었다.

225) 喙, 永 의견도 있었다.

226) 前 의견이 있었다.

227) 위 아래 글자 사이 우측에 추가되었다.

228) 刀, 좌변 미상 + 우변 刀의 의견이 있었다.

229) 좌변 미상 + 우변 隹.

230) [告], [言] 의견이 있었다.

231) 不 의견도 있었다.

232) 百 의견도 없었다.

233) 白 의견도 있었다.

234) 官 의견도 있었다.

235) 墜, 墮 의견이 있었다.

236) 位, 從 의견도 있었다.

237) 冊 의견도 있었다.

238) 冊, 十 의견도 있었다.

239) 위 ‘𪛗’자의 일부라는 의견도 있었다.

240) 六十, 本 의견이 있었다.

2017-03-임071 (꼬리표 1) : 윤선태 신5호, 전경효 임071(2017)

I : 「 舍尸麻村今未智二歲保利毛父²⁴³牛 V 」

II : 목흔 없음

2017-03-임098 (꼬리표 2) : 윤선태 신6호, 전경효 임098(2017)

I : 安²⁴⁴三斗大刀八中刀一

II : 목흔 없음

III : 목흔 없음

IV : 목흔 없음

2018-05-임006 (3면목간)

I : × □□年正月十七日[甘]□村□²⁴⁵幢主再拜[白]□²⁴⁶稟典[太]²⁴⁷[小舍]²⁴⁸□[門]²⁴⁹」

II : × □[喙]部弗[德][智]小舍易稻參石粟壹石稗參石大豆捌石」

III : × □川[一伐]上內之所白人 豈彼祗智一尺文尺智重²⁵⁰一尺」

월성 4호 해자 1653

A : × □□□□ ×

B : × □□

C : 목흔 없음

D : × □ ×

※ 上·下 불확실

3. 기타

(1) 황남동 376번지 유적 출토 목간

경주42560 (3-1) : 고대목간 281, 자전 [皇]1

I : 「 五月廿六日棕食□[內][之]下棕[有] ×

II : 「 仲棕有食卅二石 ×

경주42560 (3-2) : 고대목간 282, 자전 [皇]1

241) 開, 用, 冊 의견이 있었다.

242) 所 의견도 있었다.

243) 受, 受 의견도 있었다.

244) 兄, 慮, 豆 의견이 있었다.

245) 陂, 波 의견이 있었다.

246) 기존에 淚로 판독하였지만 좌변은 言으로 판독됨.

247) 入 의견도 있었다.

248) 米, 岑 의견도 있었다.

249) [門], 別, 別 의견이 있었다.

250) 連 의견도 있었다.

I : × [石]又米 ×

II : 목흔 없음

(2) 전인용사지(현 인왕동 사지) 출토 목간 : 자전 [仁]1, 보고서 1417

I : (정방향) 「 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 」

II : (역방향) 「 □者所貴公歲卅金侯公歲卅五

(정방향) 是二人者歲中人亦在如契²⁵¹⁾与□□[右] 」

(3)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연결통로부지 출토 목간

경주15596 : 고대목간 279, 보고서 37 자전 [博]1

A : 「 □²⁵²⁾추²⁵³⁾乘²⁵⁴⁾身中有史□²⁵⁵⁾□[命]²⁵⁶⁾日²⁵⁷⁾□²⁵⁸⁾王時爲□²⁵⁹⁾□ 」

B : 「 [時]²⁶⁰⁾策旅²⁶¹⁾衣²⁶²⁾□[哉] 」

경주15597 : 고대목간 280, 보고서 39, 자전 [博]2

A : × □□村□²⁶³⁾卅□ ×

B : × □□ ×

경주15715①

A : 「 □ ×

B : 목흔 없음

(4)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경주49090

A : × □□□□□ ×

B : 목흔 없음

C : × □□□□□ ×

D : × □□□□□ ×

※ B면에 눈금 혹은 톱니와 같은 홈들이 파여 있음.

(5) 전황복사지 출토 목간

I : 「 上[率]寺廻談沙弥廿一年 」

II : 목흔 없음

251) 미상자로 본 의견도 있었다.

252) 万 의견이 있었다.

253) 두 글자로 보아 天十이라고 본 의견도 있었다.

254) 来 의견도 있었다.

255) 寺, 看 의견도 있었다.

256) 今 의견도 있었다.

257) 日 의견도 있었다.

258) 龍 의견도 있었다.

259) 送, 迷 의견이 있었다(다수 의견 파악 중).

260) 贈 의견도 있었다.

261) 於, 詭, 試 의견도 있었다.

262) 武 의견도 있었다.

263) 沙 의견도 있었다.

한국 고대 목간의 분류 방안

김재홍(국민대학교)

한국 고대 목간의 분류 방안

김재홍(국민대학교)

〈목차〉

I. 머리말	Ⅲ. 목간의 형식 분류
Ⅱ. 목간의 번호 분류	1. 문헌학적 형식 분류
1. 목간의 출토 지점과 층위	2. 고고학적 형식 분류
2. 목간의 단계별 번호 분류	3. 형태학적 형식 분류
	Ⅳ. 맺음말

I. 머리말

인류의 역사시대는 말로 의사 소통하는 구두 전달을 뛰어넘어 문자를 통해 소통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인류사적으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역사 시대에도 문자와 더불어 구두 전달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문자의 사용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지금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는 종이에 서사라는 방식은 2,000년전에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나무나 돌, 청동기 등 다양한 매체로 문자를 새기거나 기록하였다.

종이 이전 글을 쓴 노트로는 나무로 만든 木簡과 竹簡이 있다. 종이 노트의 시대인 요즈음에도 나무에 문자를 쓰는 방식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바닷가 어촌에서 생선 젓갈을 담은 항아리에 젓갈의 종류를 표시한 나무판도 목간의 한 예에 해당한다. 고대사회에서 물품의 꼬리표로 사용된 목간이 현재도 물품 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목간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종이에 문자를 기록하던 紙木並用期였다. 현재 출토된 목간 자료로는 낙랑의 한대 목간을 거쳐 백제, 신라에서는 6세기경에 목간에 문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더 이른 시기의 목간의 출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경주 월지(안압지)에서 신라 목간이 출토된 이후 백제와 신라의 목간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출토되었다. 백제 목간은 도성인 부여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지방의 목간으로는 금산 백령산성, 나주 북암리유적,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출토가 잇따르고 있다. 신라 목간은 왕경인 경주의 월지, 월성해자등을 중심으로 출토되었고 함안 성산산성 등 산성의 집수지에서 꾸준히 지방의 목간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몽촌토성 북문 주변 집수지에서 목간이 출토되어 고구려 목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전국 각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은 2004년 『한국의 고대목간』을 발간 계기로 목간 자료의 집적이 이루어지고,¹⁾ 전시를 통해²⁾ 목간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목간의 형태와 내용의 분류에 대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었으며,³⁾ 이를 종합하

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판)한국의 고대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Ⅱ』;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하)』, 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주류성.

2) 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3)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윤선태, 2007,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

여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방안이⁴⁾ 연구성으로 이어졌다.

목간이 문서의 기능을 가졌다면 그 모양에 정형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목간의 분류는 형태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서 하나의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⁵⁾ 그룹에도 여전히 목간의 형태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정형성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방형의 문서목간과 홈이 파진 꼬리표목간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목간의 기능에 따라 형태가 정형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고대 목간의 형식 분류는 기본적으로 일본 목간의 분류를 참조하여 우리 특성에 맞게 재분류가 이루어졌으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목간은 나무판을 잘라 면을 만들어 문자를 기록하는 매체이므로 일차적으로 평면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무판을 물품 등에 고정하기 위해 상단과 하단에 홈이나 구멍 등의 속성을 만드므로 이를 이차적인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관된 기준을 세워 형식 분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방향에서 목간의 형식 분류를 시도하고 목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목간의 번호”를 매겨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목간 번호의 분류 방안

1. 목간의 출토 지점과 층위

목간이 종이 이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목간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채 100여 년이 되지 않는다. 목간은 중국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에 경주 월지(안압지)에서 처음으로 출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출토된 고대 목간은 현재 600여 점이며, 6세기에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점차 빠른 시기의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려 목간은 태안 침몰선에서 170여 점이 나왔고 조선 목간은 태안 마도 4호선에서 63점이 출토되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종이 문서가 사용되던 시기이므로 목간은 화물의 꼬리표로 기능하였다. 이에 비해 고대 목간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서와 꼬리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⁶⁾

고대 목간으로는 백제와 신라 목간이 있다. 신라 목간은 도성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성 목간은 경주의 월지, 월성 해자, 전인용사지,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남측부지, 황룡사 남측도로, 전황복사지 등 궁궐과 사찰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지방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김해 양동산성, 인천 계양산성, 부산 배산성, 창녕 화왕산성, 남원 아막성, 장수 침령산성, 대구 팔거산성, 안성 죽주산성, 익산 미륵사지, 김해 봉황대, 경산 소월리유적 등지에서 나왔다. 백제 목간도 대부분 도성인 부여에서 발견되었고 지방에서는 금산 백령산성과 나주 북암리유적,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되었다.

목간은 나무로 만들었으므로 공기에 접촉하면 부패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목간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환경이 있다. 중국의 서쪽 변경인 둔황은 극도로 건조한 사막지대로서 많은 죽간이 출토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물이 차 있는 저습지나 우물, 저수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목간은 보존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목간의 형식과 내용을 분류하는 기

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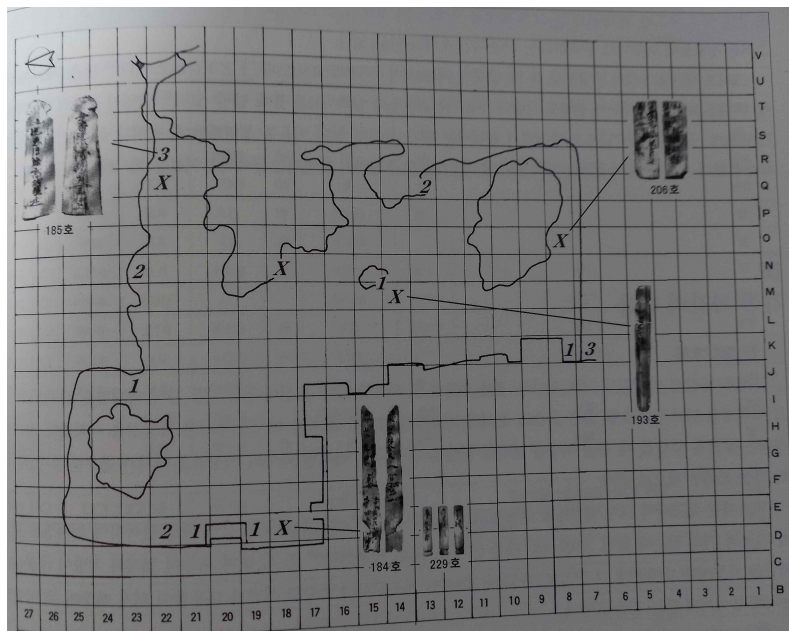
4)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23, 한국목간학회.

5) 박중환, 1994,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성」, 『국립공주박물관기요』2.

6) 김재홍, 2017, 「고대 목간, 동아시아의 문자 정보 시스템」, 『내일을 여는 역사』, 민족문제연구소.

초가 된다. 동아시아의 경우 건조한 기후가 아니므로 목간의 보존은 습기를 품고 있는 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러 점의 목간이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집수지, 우물, 도랑 등 인공적인 구조물과 관련이 있다. 인가 삶의 터전인 생활 유적 내에 있는 물 관련 유구에서 출토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신라 왕경에서 목간이 출토된 유적은 궁궐과 사찰이 다수이지만, 출토 유구의 성격은 집수지나 우물 등 물을 모아두는 유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신라 지방에서 목간이 출토된 유적의 상당수는 방어용 산성이지만 목간이 출토된 유구는 집수지나 우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목간의 형태와 내용의 분류는 유구의 성격과 관련한 논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신라 왕경에서 목간이 출토된 유구는 대부분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궁궐과 사찰의 집수지에 해당한다. 월지는 신라 통일기 궁궐에 부속된 정원으로 동남쪽의 입수구를 통해 들어온 물이 북서쪽 출수구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 단순한 집수지이라기 보다는 행사와 의례를 시행하는 공간이자, 궁전 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목간의 내용도 의례와 관련된 문서나 물품에 매단 꼬리표 목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목간의 형태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1〉 월지 목간 출토 위치(하시모토 2020)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이 출토 위치와 범위이다. 월지에서 목간이 출토된 위치는 보고서에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의 목간 항목을 작성한 이기동은 2~3점을 제외하고 서북방에 위치한 임해전의 제4건물지에서 제5건물지로 통하는 이중 호안석축 및 갯벌류에서 발견되었다고⁷⁾ 하였다. 그러나 이용현은 발굴 경과 및 보존처리 기록, 도판의 출토 지점이 명기된 목간 사진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그 지점 16점 이외에는 동안에서도 26점이 출토된 사실을 밝혔다.⁸⁾ 이를 보완하여 하시모토는 새로운 출토 위치 도면을 제시하였다(〈그림 1〉).⁹⁾ 이에 의하면 월지 출토 목간은 한 지점에서 출토된 일괄 자료가 아니라 월지 호안의 여러 지점에서 출토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월지가 통일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장기간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간의 폐기 이후 물에 의한 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목간이 석축 호안이나 중도 호안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여러 세기에 걸쳐 수 차례 폐기되는 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월지 목간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문서나 물품 목간을 모아 일괄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행사나 생활에서 사용한 목간을 사용 후에 개

7)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p.285;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8)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pp.223~231.

9) 하시모토 시게루, 2020,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두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00, 한국고대사학회, pp.228~229.

별적으로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다른 양상이 월성해자에서 확인된다. 월성해자에서 목간은 4호 석축해자에서 출토된 1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호 연못형 해자에서 출토되었다. 1985~86년에 출토된 목서 목간 29점 중에서 19점이 1호 해자 동북쪽 호안 부근에서 출토되었으며, 그리드상으로는 다480N20트렌치(10×10m 트렌치)에 해당한다.¹⁰⁾ 주변 트렌치에서도 2점에 출토된 상황을 고려하면 21점이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2016~17년에 출토된 목간 및 목간형 목제품 57점은 1호 연못형 해자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그리드상으로 다540그리드와 다560그리드에서 밀집되어 있었다. 출토 층위는 1980년대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갯벌, 뺨층, 모래뺨층, 흑색뺨층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¹¹⁾ 2016년 조사 이후 V층 흑갈색점토층으로 표시하고 있다. 1호 해자 전반에 걸쳐 목간이 분포하지만 이것은 목간의 폐기 이후 물에 의한 침하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1호 연못형 해자 내에서 북동쪽 호안과 남서쪽 호안의 주변에서 주로 출토되는 현상으로 보아 목간을 폐기한 시점에 동일한 지점에 던져 폐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은 현재 발굴조사 상황으로 보아 일정한 지점에서 폐기되어 1호 연못형 해자가 매몰되는 통일기 무렵에 현재의 위치에 같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해자 출토 목간은 물이 유동적인 해자의 환경에서도 출토 지점의 집중성이 잘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 용도를 상실한 목간을 일괄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 출토 목간과 2010년대 출토 목간은 그 출토 위치가 떨어져 있어 다른 시기나 다른 사용 집단이 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주변에서도 한 두 점 나오고 있으나 동일한 시점에 투기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것은 월성해자의 성격과도 결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월성해자 북쪽 지역에는 6세기 이후 신라 중앙 관아와 창고군이 밀집하여 있다. 이곳 관아에서 사용한 목간을 모아 일괄적으로 폐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목간의 내용으로 보아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주고 받은 문서나 물품을 기록한 목간으로 추정된다. 물품을 기록한 목간도 장부나 기록간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으며, 물품에 바로 매단 꼬리표 목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유적의 정황상 꼬리표 목간보다는 문서 목간이 많이 출토되었다. 월성해자에서 문서의 내용을 담은 사각형 목간(중국의 觚)이 많이 출토되는 현상도 이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월성의 연못형 해자는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200년간 사용되었으며, 7세기 후반에 이것을 매몰하고 석축형 해자를 만들었다. 월성의 방어용 구조물에서 정원으로 경관이 바뀌었다. 연못형 해자의 주변에는 관아나 창고에 해당하는 건물군이 들어서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목간은 대부분 주변 관아에서 사용하고 폐기되었다. 이에 비해 월지는 7세기 후반 이후 궁궐의 정원으로 조영되었다. 이곳의 목간은 궁궐에서 이루어진 생활과 의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 월성해자 목간은 6~7세기, 월지 목간은 7~10세기, 특히 8세기의 문장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유적의 성격이 다르고 사용처나 사용인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2. 목간의 단계별 번호 분류

목간은 나무를 사용하여 문자를 기록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을 마치면 폐기되는 일생을 보낸다. 목간의 제작은 재료의 선택 → 성형 → 문자 적기 등의 제작 과정을 거치고 사용 용도에 따라 물품에 부착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¹²⁾ 사용 목적을 다한 목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고찰-』, pp.133~135.

11) 박정재, 2018, 「경주 월성 해자 조사 성과와 목간」, 『목간과 문자』20, 한국목간학회, p.53.

1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성산산성 목간, 발굴에서 보존까지』.

사용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폐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폐기 후에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훼손이 진행되기도 하여 원형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목간은 폐기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목간이 출토된 고고 환경도 폐기 및 훼손을 거친 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이 차 있는 집수지나 우물, 도랑에서 출토된 목간은 출토 상황에 따라 층위와 그리드를 표시하게 된다. 특히 목간이 출토된 유적은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유수 현상이 발생하여 이동의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토기 등과 함께 가라앉기도 하여 뺄층에 파묻히기도 하였다. 이후 집수지 등 물이 차 있는 공간이 매몰되면서 지층 아래에 묻히게 된다. 이 상태에서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노출되게 된다. 지표 아래에 매몰되었으나 대부분은 진흙과 같은 뺄층에서 출토된다. 일반적으로 고고 유물은 층위와 트렌치의 그리드를 통해 위치와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월성 해자의 경우에도 층위와 그리드를 통해 목간의 출토 상황을 알 수 있다. 월성 해자는 10×10m의 그리드를 쳐서 트렌치 조사를 시행하여 공간적인 범위를 파악하였고, 유물은 층위를 통해 시간적인 범위를 알려주고 있다. 월성 해자 목간은 1점을 제외하고 모두 1호 연못형 해자에서 출토되었으며, 2개의 지점에서 집중적인 출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목간의 출토된 그리드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출토 지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유수에 의해 목간의 이동을 고려하면 출토 지점과 폐기 지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간을 다발로 폐기할 시에 일정 기간 가라앉을 수 있어 그 주변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월성 해자 목간은 일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점에 투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특정 사용처나 사용인을 알려주고 있다.

월성 해자 중에서 1~3호 연못형 해자는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토층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토층은 위에서부터 지표층-자연퇴적층(근대경작층)-석축해자 내부퇴적층-연못형해자 내부퇴적층-기반층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연못형해자 내부퇴적층에서는 이단투창고배, 단각고배, 단판연화문수막새 등 5~7세기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석축해자 내부퇴적층에서는 지그재거문 대부완, 중판연화문수막새 등 8~10세기로 편년되는 신라 통일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연못형 해자 내부퇴적층인 V층은 다시 V-1층, V-2층, V-3층으로 구분되지만 토기의 변화상을 통해 전반적인 양상을 알 수 있을 뿐이며, 토층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V층은 모두 흑갈색 점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뺄층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간 보고를 겸하고 있는 도록이나¹³⁾ 논문에서¹⁴⁾ 목간은 V-1층과 V-2층의 중간에서 출토되었다고 표시된 것도 층간의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월성 해자 출토 목간의 출토 층위를 세분하여 V-1층, V-2층, V-3층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V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표시한 것은¹⁵⁾ 층위 구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간의 출토 층위는 V층 흑갈색 점질토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간의 고고 환경은 층위에서 잘 드러나지만 진흙층이라는 특성상 층위의 세분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층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목간이 출토된 층위와 출토 지점은 그 정황으로 보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월성 해자나 월지처럼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출토된 목간은 층위나 출토 지점을 통해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일시에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목

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18, 『신라 왕궁 월성』, 전시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9,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전시도록.

14) 장기명, 2021, 「월성 해자의 조사 성과와 고환경 연구와의 접점」, 『신라문화』5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pp.47~48.

15) 박정재, 2018, 「경주 월성 해자 조사 성과와 목간」, 『목간과 문자』20, 한국목간학회, pp.51~52.

간은 비교적 연대를 추정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대부분 동문의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괄 매납되었으므로 동문의 축조 시점이나 공반 유물의 추적을 통해 연대를 추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¹⁶⁾

고고 환경을 고려한다 해도 목간의 출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마친 목간에는 출토 위치를 알려주는 그리드의 번호를 통해 표시한다. 월성해자의 경우 2016년에 출토된 ‘丙午年’이 쓰여진 목간은 “다560S20(1830+1260) L:37.81”이라는 위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 그리드 번호는 출토 위치별 유물의 출토 상황을 알기는 쉬우나 동일 그리드에 다양한 유물(토기, 금속기 등)의 출토 상황을 알려 주어 목간의 일련번호로는 의미가 감소된다. 그렇지만 그리드 번호는 목간의 최초 출토 위치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실례로 중국 고대 목간도 출토 위치를 통해 번호로 분류하고 있다. 居延舊簡은 출토 후 수집한 자루를 기준으로 하여, 61.7=286.29와 같이 표기한다. ‘.’ 앞의 숫자는 목간을 채집했던 자루(袋)의 번호, ‘.’ 뒤의 숫자는 몇 번째인가를 보여준다. ‘=’ 또는 ‘+’는 두 간이 접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61과 286은 동일한 지점에서 채집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居延新簡은 출토 유적과 세부 그리드(greed) 번호로 표시하며, 목간 번호로 EPT51.535를 사용한다. ‘EP’는 甲渠候官유적인 破城子를 가리키며, ‘T51’은 51번 그리드, ‘535’는 해당 그리드의 535번째 목간을 알려준다.¹⁷⁾ 거연한간의 번호는 목간 출토 상황과 수거 과정을 잘 보여준다. 거연구간은 그리드를 설정하여 트렌치 발굴을 하지 않아 채집한 상자(자루)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반면, 거연신간은 트렌치를 설치하여 그리드별로 채집하여 출토 위치와 분포를 알려 준다.

이렇게 목간의 번호에는 일차적으로 출토 상황을 알려주는 번호가 부여되며, 최초의 명칭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번호는 목간 연구자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지만 출토 위치와 고고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출토된 목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유적과 유구를 대상으로 임시번호를 부여한다. 월성 해자 신출토 목간은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시번호로 “WS-M1-2016-05-임069”로 표시된다. 임시번호에는 출토 위치-출토 연도-임시번호를 매겨 발굴조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임시번호를 통해서도 출토 목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임069(2016)로 표시하기도 하는데,¹⁸⁾ 임시유물번호(연도)만 기입하고 있다.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마다 출토 목간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게 된다. 월성 해자 1980년대 출토 목간은 월성 해자 목간 1호로부터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목간 연구자에게 익숙한 『한국의 고대 목간』(2004)에 나오는 월성 해자 목간의 번호 148~181번도 부기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월성 해자Ⅱ 보고서에¹⁹⁾ 따르면, 목간 및 목간형 목제품은 104점이며, 도면 항목에서 “월성해자 출토 목간 1~104호”로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목간을 해설하는 본문과 더불어 스케일이 들어간 도면은 단면도 자세히 묘사하여 향후 목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 목간의 형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목간 1~104호”로 기재하고 있으나 본문을 기술한 부분에서는 130점의 목간 및 목간류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에서 목서가 있는 목간은 34점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저서에서는²⁰⁾ 목간 및 목간류는 104점이며, 이중에서 목서가 있는 목간은 25점으로 기술하여 다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의 목간 보고자가 저술을 출간하면서 수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치하

16) 김재홍, 2019,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목간과 문자』22, 한국목간학회, pp.20~21.

17) 大庭 修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18쪽 凡例.

18) 전경효,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20, 한국목간학회, p.63.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고찰-』.

20)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p.69-71.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한국목간학회 월성 해자 목간 조사에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협의하여 목간 및 목간류는 105점이며, 목서가 있는 목간은 29점으로 잠정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월성 해자 4호에서도 1점이 나오므로 총 목서 목간은 30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출토된 목간은 임시적으로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고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월성 해자 Ⅱ 보고서의 번호와 연결하는 문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유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며, 유물의 최종적이지자 정식 번호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번호는 목간 소장 기관에서 부여하는 국가귀속번호이다. 국가귀속번호는 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소장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고서에 실린 유적별, 유물별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고서에 수록된 목간은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유물의 명칭은 소장 기관이 지정한 명칭을 사용한다. 경주 월지의 목간은 “안압지”라는 명칭으로 번호를 부여 받고 있다.

목간의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보면 ①출토 위치 번호, ②임시 번호, ③보고서 번호, ④국가귀속번호 등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일견 다양한 번호가 부과되어 혼란스럽겠지만, 각각의 번호는 고고 자료로서 목간을 정리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므로 정리 단계별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관찰하고자 하는 목간이 있다면 ④국가귀속번호를 알면 가장 신속하게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쉽게 접하므로 보고서의 번호를 통해 국가귀속번호를 추적하여 목간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번호로서 의미를 가지는 국가귀속번호를 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연구자는 번호를 알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목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번호와 목간명이 확정되면 검색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점이 있으나 목간의 출토 후 정리과정을 고려하면 각 단계의 번호도 의미를 가진다. 한 계통의 번호와 명칭으로 통일되면 검색의 편리는 도모되지만 또 하나의 목간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 목간의 정리에 있어서 ‘목간의 일련번호 확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²¹⁾ 하나의 목간에 하나의 일련번호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²²⁾ 있다.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지만 목간 발굴조사와 정리의 과정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일련 번호는 번호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목간의 번호는 곧 목간의 명칭을 의미하므로 찾기 쉬운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번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목간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명칭은 출토된 유적명이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목간 번호가 일치한다. 일차적으로 목간의 번호에는 유적명이 표시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서적이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의 고대목간』(2004)과 『(개정판)한국의 고대목간』(2006)이다. 당시까지 출토된 목간의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함안 성산산성을 필두로 12개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을 “지명+출토 유적명”으로 표현하고 유적의 순서를 정하여 1번(함안 성산산성)부터 319번(익산 미륵사지)까지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한 권의 자료집에 당시까지 출토된 목간을 일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유적별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로는 부적절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목간을 모아 하나의 체제로 묶어 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현재까지도 쉽게

21)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p.1.

22)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23, 한국목간학회, p.23.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록에서 제시된 일련번호를 목간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후 목간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있다. 그러나 발간된 보고서의 목간 명칭 및 번호와 일치하지 않고, 최종 소장 상황을 알려주는 국가귀속번호와도 상관이 없어 실물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후 이 책에 실린 함안 성산산성, 경주 월성해자 등에서 추가로 목간이 출토되면서 추가번호를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2〉 한국의 고대목간Ⅱ의 목간 분류

1264” 등으로 번호를 매기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Ⅱ』 보고서 이후부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국가귀속번호를 받고 있다. 동일한 유적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번호가 3개 기관의 번호로 기입되어 있다. 이 유물을 모두 관찰하려면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 3개 기관의 번호를 검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고대목간Ⅱ』의 색인에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245점을 국가귀속번호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색인에 보고서, 도록, 자료집, 자전 등에서 작성한 번호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현재 목간 연구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목간 자료집은 『(증보판)한국의 고대목간』(2006)이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한국의 고대목간Ⅱ』(2017)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①자료집의 연번, ②국가귀속번호, ③목간의 분류명(양면목서목간 등); 국문·한자·영문, ④규격, ⑤나무의 재질, ⑥판독문, ⑦칼라사진, ⑧적외선사진, ⑨실측 도면, ⑩탁본 등의 순서로 편집하였으며, 사진과 도면 및 탁본은 실물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면에 목간의 기본 사항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나온 목간 자료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자료집과 도록의 장점을 잘 살린 간행물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자료집은 『한국의 고대목간Ⅱ』가 유일하지만 향후 중요 유적 출토 목간은 이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주 월지, 경주 월성 해자, 하남 이성산성, 나주 복암리, 부여 출토 목간은 개별 자료집으로 제작하면 효과적이다.

『한국의 고대 목간Ⅱ』에서 목간의 번호로 국가귀속번호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편 의상 수록 순서에 따라 붙인 “연번”을 사용하기도 한다.²³⁾ 연번을 사용할 시에는 일련번호로 일 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물 목간을 검색할 시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 당 연번의 사용은 새로운 번호를 하나 더 늘린 현상이 되며, 기존의 일련번호와 겹치면서도 지 칭하는 대상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²⁴⁾ 성산산성 목간 뿐만 아니라 출토 목간은 최종적 인 유물번호인 국가귀속번호를 사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 정리된 목간의 번호는 국가귀속번호가 유효할 것이며, 목간의 고고 환경과 유물의 형상을 가장 잘 기록한 보고서의 유물번호와 사진, 도면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귀속번호 는 해당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의 유물번호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연구자가 해당 유물을 관찰하고자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해당 목간을 찾아 소 장 기관에 요청하면 국가귀속번호를 통해 해당 유물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 유물번호와 국가귀속번호의 상호교차 검토는 필요하다.

Ⅲ. 목간의 형식 분류

1. 문헌학적 형식 분류

목간은 주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문서 목간과 꼬리표 목간의 분 류이다. 문서 목간은 일반적으로 장방형, 꼬리표목간은 홈형을 띠고 있어 일찍부터 목간의 내용 과 형태를 연결하여 분류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졌다.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가 대표적 이며, 국내 연구자도 이를 변형하여 한국 출토 목간에 맞게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 식 분류와 내용 분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분류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목간의 내용은 목서의 상태가 양호하고 이를 판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용이하게 판 독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서 양식을 내용적으로 분류할 경우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현존하는 목간의 형태적인 형식 분류를 통해 목간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연구자의 분류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목간은 형태와 내용을 모두 고려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간을 사용하던 시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편철간과 단독간을 크게 나누었다. 편철간 은 책서의 형태로 간을 묶는 수권 방법에 따라 서적간과 파일간(帳簿)으로 분류하였다. 단독간 은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한대부터 檢(수신자 기입용, 봉함용 목간), 檄(격서·격문), 牒(꼬리 표·운송표·뜻말), 調(명함), 傳(신분증·여권), 符(부절·부신), 觚(다면체 목간) 등으로 분류한다.²⁵⁾ 일본 목간은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목간학회가 내용과 형태를 기준으로 수식화한 형식 번호를 사용한다.

011: 세장방형(短冊型).

015: 세장방형(短冊型)으로, 측면에 구멍을 뚫은 것.

019: 한쪽 끝이 方頭이고 다른 끝은 절손·부식으로 원형을 잃어버린 것.

23) 윤재석 편저, 2022, 『한국목간총람』23,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pp.277~353.

24)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23, 한국목간학회, p.25.

25) 도미야 이타루(冨谷至), 2005,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pp.96~127; 이승률, 2013,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1』, 예문서원, pp.136~153; 李均明, 2005, 『古代簡牘』, 文物出版社, pp.170~198.

- 021: 小形 矩形.
- 022: 小形 矩形 목재의 한 끝을 圭頭로 한 것.
- 031: 장방형 목재의 양쪽 끝 좌우에 홈을 넣은 것. 方頭·圭頭 등 다양한 제작 방식 있음.
- 032: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에 홈을 넣은 것.
- 033: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에 홈을 넣고, 다른쪽 끝을 뿔족하게 한 것.
- 039: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에 홈을 넣었지만, 다른 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은 것.
- 041: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를 깎아서 羽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든 것.
- 043: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羽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좌우에 홈을 넣은 것.
- 049: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羽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들었으나, 다른 한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은 것.
- 051: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뿔족하게 한 것.
- 059: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뿔족하게 했지만 다른 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어버린 것.
- 061: 용도가 명료한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 안에 제품명을 주기함.
- 065: 용도 미상인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 081: 절손·부식 등의 원인으로 원형을 판명할 수 없는 것.
- 091: 부스러기(削屑).

이 형식 분류는 01세장방형/02방형/03홈형/04우자판형/05뿔족형/06/08/09부스러기 등으로 나누고 셋째 자리의 숫자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셋째 자리 숫자 중에서 9는 파손되거나 부식되어 원형을 잃은 경우로 목간의 현재 상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수식화를 통한 형식 분류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이 있지만 기능과 성격을 세분화하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²⁶⁾ 수식화를 통해 형식 분류를 시도했지만 대분류와 소분류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출토된 목간의 형태와 내용을 고려하여 수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형식 분류에서 중요한 요소는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분류는 형식 분류를 수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용을 고려하여 수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금도 일본 목간의 분류에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01세장방형/02방형/03홈형/04우자판형/05뿔족형/09부스러기 등의 분류는 한국 목간의 형식 분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목간의 대분류인 세장방형, 방형, 홈형, 뿔족형 등은 명칭을 바꾸어 한국 목간의 분류에도 적용하고 있다.²⁷⁾ 다음 <표 2>는 대표적인 형식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26) 鬼頭清明, 1990 『木簡』, ニュー・サイエンス社, pp.37~39.

27)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윤선태, 2007,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윤선태(2007)		윤선태(2013)	이용현(2006)	이경섭(2013)
1. 편철간				
2. 단독간	2-1. 세장형	I.세장형	홀형	장방판형 목간
	2-2. 다면	IV.다면	막대형	다면형 목간
	2-3. 원주형			원주형 목간
	2-4. 방형		가로형	
	2-5. 부찰형	II.홈 III.구멍	파임형 꼬리표	홈형 목간
	2-6. 기타	V.하단 첨형		기타 형태 목간
3. 목간 부스러기				

〈표 2〉 한국 고대 목간의 형식 분류

한국의 형식 분류는 일본 목간의 분류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형식 분류의 기준 설정이 없이 다양한 평면 형태를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와 윤무병의 고고학적인 형식 분류를 참조하여 이재환은 출토 목간의 대부분은 세로로 긴 장방형 판 형태의 목재로 동일하므로 기본적인 목재의 형태를 분류하고, 상·하 단부 처리 방식은 다른 층위로서 구분하여 세부 요소로 보고 있다. 먼저 목재의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1.종장방형 목판, 2.횡장방형 목판, 4.기둥형 막대, 6.기타, 8.미상, 9.삭설 등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상단과 하단의 형태를 세분하여 2차 코드를 부여하였는데, 상단은 알파벳 대문자, 하단은 알파벳 소문자로 분류하였다. 단일 목간의 여러 형태 요소를 조합하여 분류하였는데, 상·하단이 모두 삼각형이면서 상단에 구멍이 있는 목간은 'BHb'로 검색할 수 있다.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목간에 “외형 : 11, 단부 : Bbj, 서사면수 : II”로 분류하고 있다(〈표 3〉). 설정 기준의 단순화에 비해 조합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목간의 분류라기 보다는 검색의 편리를 도모한 듯하다. 윤무병의 형식 분류를 참조하여 목간의 평면 형태를 주된 요소로 하고 상단과 하단의 형태를 반영함으로써 형식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단순한 기준 설정이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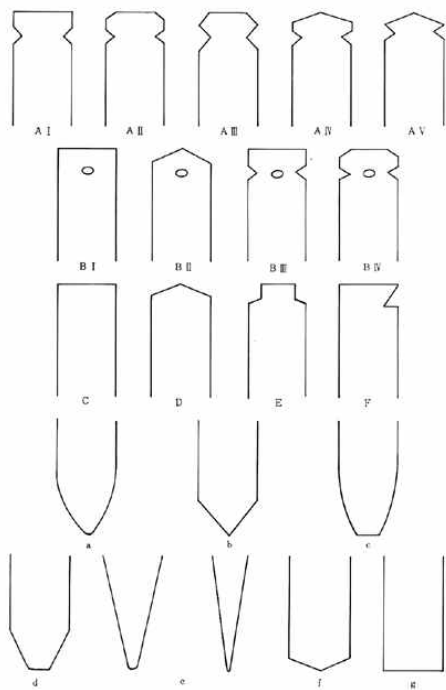


〈표 3〉목간의 분류안(이재환)

2. 고고학적 형식 분류

목간의 고고학적인 형식 분류는 발굴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 경주 월지가 아니라 신안 침물선에서 출수된 신안해저 목간에서 이루어졌다. 윤무병은²⁸⁾ 신안 출수 목간을 대상으로 고고학적 형식 분류를 적용하여 형식을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한 면의 도면으로 정리하고 있다(〈그림 3〉). 먼저 목간 상단을 A, B, C, D, E, F로 분류하고, 다시 하단을 a, b, c, d, e, f, g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상단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겨 물품을 묶기 위한 홈과 구멍을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면서 상단 양쪽에 > <형 홈을 낸 것을 A형, 가운데 구멍이 난 형태를 B형, 일자형으로

28) 윤무병, 1984, 「木牌」, 『신안해저유물 II』, 문화재관리국, pp.89~90.



자른 형태를 C형, 삼각형으로 다듬은 형태를 D형,凸자 형태의 E형, 상단 한쪽에만 <형 홈을 낸 F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어 하단은 뾰족한 형태를 위주로 6개의 형으로 나누고 있다. 유무병의 분류는 신안 출수 꼬리표 목간에서 끈을 묶는 상단에 주목하여 형식을 분류하였으나 고고학적으로 목간의 형식을 세분하여 목간 분류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이 목간 분류는 본문에서 목간을 설명할 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무병의 형식 분류는 고고학적인 형식 분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목간의 분류에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의 분류가 상단을 위주로 하단을 고려한 분류하는 점에서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세분하여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카우치 미쓰사네는²⁹⁾ 유무병의 분류안을 참고하면서 상단 <형 홈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분류하고 하단도 형태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상단을 홈,

<그림 3> 유무병의 신안 목간의 형식 분류 구멍, 자른 형태 등을 기준으로 I·II·III·IV·V·VI·VII 등의 7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하단을 3형식으로 나누어 끝을 뾰족하게 깎은 것을 A형, 뾰족하게 깎은 끝을 일자형으로 자른 것을 B형, 일자형으로 평탄하게 자른 것을 C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목간의 형식을 표를 작성하여 오른쪽에는 상단의 분류를, 왼쪽에는 하단의 분류를 수식화하여 시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의 분류는 I A~VII C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무병의 분류를 참조하여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유무병과 오카우치의 고고학적인 형식 분류는 목간의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수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시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형태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성도 확보하고 있으나 개별 목간의 기능과 성질 등을 분석할 시에는 일일이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유무병과 오카우치의 분류안은 이해하기 편리한 분류안이지만 개별 목간의 기능과 성질을 분석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면과 표로 작성하여 보기 편리한 분류안이지만 이후에 계승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분류로서의 방안을 뛰어넘는 형식 분류가 필요한 지점이다.

출토 목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모범적인 것이 일본 야시로(屋代)유적군 목간 보고서이다.³⁰⁾ 여기에서 목간의 형식은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설정하였다. 목간의 형태는 제작 시의 형태와 轉用 또는 폐기 시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먼저 제작시의 형태는 상하단부 평면형을 기준으로 [1]直頭形:상·하단을 직선적으로 성형·조정한 것, [2]複數稜形:조정을 여러 번 실시함으로써 모줄임(稜)이 붙은 것, [3]圭頭形: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성형·조정한 것, [4]斜行形: 끝부분을 비스듬히 성형, 조정한 것, [5]劍先形:주로 하단을 예각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하단부 단면형을 기준으로 [ア]끝을 비스듬히 사선으로 자른 것, [イ] 끝을 앞면과 뒷

29) 岡内三眞, 1986, 「新安沈沒船を通じてみた東アジアの貿易」, 『朝鮮史研究會論文集』23.

30) 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1996 『長野縣屋代遺跡群出土木簡』凡例.

면에서 모따기하여 단면 V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여 단면의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측면 홈의 여부를 기준으로 [0]측면에 > <형태의 홈이 없는 것, [6] 측면에 <, \, [형상의 홈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홈의 형태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야시로유적군 목간의 분류에서 새로이 주목한 부분이 목간의 전용과 폐기 시의 형상을 고려한 점이다. 전용 혹은 폐기 시에 상하단부에 칼을 넣어 형성된 평면형태를 기호로 나타내었다. 상하단부 평면형을 기준으로 [A]상하단이 직선적으로 절단된 것, [B]상하단이 비스듬히 절단된 것, [Z]칼을 넣지 않은 파손 혹은 부식된 것 등으로 분류하고 측면형을 기준으로 [f]2차적 절단, 힘에 의한 분할, 혹은 파손, 부식에 의해 한쪽 측면이 잔존하지 않는 것, [F]2차적 절단, 힘에 의한 분할 혹은 절손, 부식으로 인하여 양쪽 측면이 잔존하지 않는 것 등으로 분류하였다.

야시로유적군 목간의 형식분류는 제작 시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용 및 폐기시 의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제작 기법과 표면 조정법 등 기술적인 면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간을 고고 자료로 보고 토기 및 금속기 등과 동일하게 형식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기 요소를 기준으로 목간을 분류하여 수식화하여 도면화하고 있으나 세분화되어 분류를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형식 분류를 기준으로 보고서의 본문에서도 목간의 형태와 더불어 내용의 기술도 고고학 보고서의 체제를 빌려와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목간은 적외선 사진은 실물대로 하고 도면은 1/2로 통일하고 있으며, 문서, 부찰, 기타(습서 등) 목간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개별 목간은 규격, 형식, 목재 절취 부위, 수종, 출토유구, 출토층위 등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적인 형식분류는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수식화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목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 분류라 할 수 있지만, 세부 형식을 지나치게 설정하여 목간의 효율적인 분류하는 측면에서는 참조하기 어려운 형식 분류이다. 형식 분류의 요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형태학적 형식 분류

평면 I:장방형, II:봉형, III:부스러기

상부 A:직각형, B:횡직각형, C:구멍형, D:홈형, E:규두형, E':뿔족형, F:반원형 G:사선형

하부 a:직각형, b:횡직각형, c:구멍형, d:홈형, e:규형, e':뿔족형, f:반원형 g:사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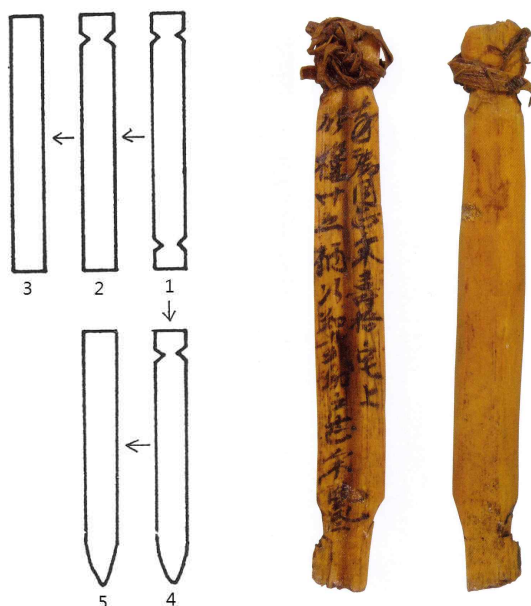
단면 1:원주형, 2:삼각형, 3:사각형, 4:오각형

파손 ×

현존하는 목간은 기본적으로 기능과 용도를 마치고 폐기되어 남겨진 자료이므로 현재 형태는 사용 시의 원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고 전제되는 과정에서 변형을 거친 형태라는 사실이다. 물론 전체적인 형태가 원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절단되고 부러진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목간이 용도를 다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삭도로 잘라져 버려지거나 인위적으로 부러뜨려 폐기하기도 하였다. 있는 그대로 폐기하기 보다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폐기 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부러진 목간에 보이는 칼날 자국은 목간의 폐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요즈음 용도를 다한 공식문서를 절단기로 분쇄하는 방식도 목간을 잘라 부러뜨려 폐기하는 과정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목간의 분류는 반드시 원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목간의 형태와 보존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원형을 복원하여 목간의 형식을 분류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목간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원형을 잃은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의 전모를 모두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잘려진 목간을 대상으로 원형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한 자연적인 퇴적 과정에서 목간에 쓰여진 목서가 지워지거나 희미해지기도 한다. 출토된 목간의 형태를 가진 유물의 수량에 비해 목서가 있는 목간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간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분류안을 세우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목간의 분류는 현존하는 목간의 형상을 기준으로 최대한 분류할 필요가 제기된다. 목간의 형식 분류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문자의 진행 방향이다. 문자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시작하는 지점을 상단으로 하고 그 아랫부분을 하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라의 꼬리표 홈형 목간은 월지, 월성 해자, 성산산성 등에서 잘 보이지만 형태와 문자를 서사하는 방식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성 해자와 성산산성의 꼬리표 목간은 > < 홈이 있는 부분에서 반대편에서 문자를 기입하고 있으며, 월지 목간은 > < 홈이 있는 부분에서 그 아래로 문자를 기재하고 있다.³¹⁾ 문자를 기준으로 그 형태가 상하 반대로 보이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월성 해자와 성산



산성 목간은 삼국시기에 해당하고 월지 목간은 통일기에 속하여 시기차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문서 성격을 반영하는지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자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상단과 하단이 고정되므로 문자의 진행성이 중요하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목간에는 대략 5가지의 유형이 존재하였다(<그림 4>).³²⁾ 목간은 기본적으로 아래 위의 양측에 있는 홈의 유무와 아래 위의 끝부분이 형태가 뾰족한 것과 뿔뿔한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목간에 있는 홈과 뾰족한 형태는 화물에 쉽게 부착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고려 목간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홈에 끈이 달려 화물과 결합한 목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그림 5>).

<그림 4> 고대 꼬리표 목간의 분류 <그림 5> 양 끝을 끈으로 묶은 꼬리표 목간 고대 목간 중에서 기본형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홈이 있는 것이었다. 상단과 하단의 홈에 끈을 묶어 화물에 고정하였던 것이다(그림4-1). 이것이 점차 간략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화 하게 된다. 목간의 홈이 줄어들거나(그림4-2) 없어지는 것(그림4-3)으로, 주로 문서를 기록하는 문서 목간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목간의 하단을 뾰족하게 가공하고(그림4-4) 홈을 없애는(그림4-5) 것으로 짐의 꼬리표로 사용하였다. 고대에는 홈이 상·하단에 있는 기본형이 다른 유형과 함께 발견되는데,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목간이 사용되는 시기에 종이문서가 사용되는 지목병행기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목간의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³³⁾

31)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3, pp.67~72;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pp.204~205.

32) <그림 1>은 今泉隆雄, 1978, 「貢進物付札의 諸問題」, 『研究論集Ⅳ』, 國立奈良文化財研究所, p.21의 그림을 기초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33) 김재홍, 2016, 「태안 침몰선 고려 목간의 문서양식과 운송체계」, 『한국중세사연구』47, pp.224~225; 김재홍, 2017, 「고려 출수 목간의 지역별 문서양식과 선적방식」, 『목간과 문자』19, pp.56~57.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목간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 월성 해자에서는 중국 고(觚) 형태의 다면 목간과 나무껍질만 벗긴 채 사용한 원주형 목간이 많이 출토되었다. 정형화되기 이전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목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한국 고대 목간의 특성이다. 정형화된 목간이 사용되기 이전에 신라에서는 여러 면과 원주형의 목간에 문서의 내용을 적었던 것이다.

목간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다듬어 글자를 쓰거나 새기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므로 그 형태에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글자가 쓰여진 면이 기준이 되므로 평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간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나무 면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듬은 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글자면을 기준으로 평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목간의 평면 형태는 세로로 길게 가공한 (세)장방형이 글자를 쓰기에 좋은 환경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으로 간단하게 나뭇가지를 다듬어 사용한 봉형도 평면 형태의 하나이다. 막대모양인 봉형에는 圓柱形과 다각형이 있으며, 다각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이 있다. 목간의 원형은 아니지만 목간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단계에서 나온 목간 부스러기[削屑]도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목간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장방형은 I 형, 봉형은 II 형, 부스러기는 III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목간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봉형, 부스러기로 3형식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목간의 형태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 부분은 상단과 하단의 형태이다. 상단과 하단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목간의 상단과 하단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기능과 관련된 형태는 상단에 잘 베풀어져 있다. 따라서 상단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등을 부여하고 하단은 알파벳 소문자인 a, b, c 등을 부여하려고 한다. 상단 형태는 평면 상태를 기준으로 A:직각형, B:횡직각형, C:구멍형, D:홈형, E:규두형, E':뿔족형, F:반원형 G:사선형 등으로 구분하고 향후 새로운 형태가 출현할 시에 추가할 수 있다. 하단 형태는 평면 상태를 기준으로 상부 형태와 거의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목간 하단은 a:직각형, b:횡직각형, c:구멍형, d:홈형, e:규형, e':뿔족형, f:반원형 g:사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형상으로 비슷하지만 E:e:규형과 E':e':뿔족형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구별이 가능하여 설정하였다. 특히 e':뿔족형은 하단의 중요 요소이자 기능의 하나로 물품 등에 꽂는 형상으로 적당하여 하나의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단의 규형은 人의 형태로 삼각형을 띠고 있으나 하단 규형은 V와 U의 다양한 형태가 있어 뿔족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규형은 삼각형이라 할 수 있으나 단면 삼각형과 구분하기 위해 한자 圭를 사용하였다. 상단 알파벳 대문자와 하단 알파벳 소문자는 목간 I 형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목간 II는 평면 형태보다는 단면 형태에서 구별되므로 단면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단면 형태에 따라 1:원주형, 2:삼각형, 3:사각형, 4:오각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상 원주형과 다각형(다면형)은 분리하기도 하지만 형태상으로 막대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다면에 글자를 썼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다각형 목간은 글자가 여러 면에 걸쳐 쓰여져 있으나 다각의 형태와 글자를 쓴 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삼각형이지만 2면에 걸쳐 글자를 쓰고 한 면을 비워 두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각형을 다면형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지만 형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다각형이 어울린다. 기존의 삼면 목간 중에서 삼각형 목간에 2면만 글자를 쓴 경우에 형태와 내용에 따라 면의 기준이 달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간 III은 목간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로서 최초 목간의 글자가 남아 있어 목간의 한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간의 평면 형태와 관련없이 파손된 상태를 기술할 필

요가 있다. 파손은 제작시의 형상보다는 폐기 시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파손은 ×를 사용한다.

VIII. 맺음말

이 글은 한국 고대 목간을 대상으로 유적에서 출토 이후 수장고에 수장하는 단계별로 번호 분류의 의미를 살피고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목간의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목간의 외형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검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목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간의 분류 방안은 크게 번호의 분류와 형식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목간의 번호는 목간의 명칭과 더불어 목간을 쉽게 파악하는 분류 방식이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번호가 부여된다. 목간은 ①출토 위치 번호, ②임시 번호, ③보고서 번호, ④국가귀속번호 등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출토 위치 번호는 목간의 출토 위치와 층위를 표현한 번호로서 학문적인 자료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목간의 최종적인 번호는 소장 기관의 수장번호를 반영하는 국가귀속번호이며, 목간의 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목간의 형식 분류는 평면 형태와 상하단 형태, 단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목간의 평면 형태를 고려하여 I:장방형, II:봉형, III:부스러기로 분류할 수 있다. I:장방형의 하위 단위로 상단 형태는 알파벳 대문자, 하단 형태는 알파벳 소문자를 세분할 수 있으며, II:봉형의 하위 단위는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폐기 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손은 ‘×’로 표현하여 현존 상황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성산산성 목간, 발굴에서 보존까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Ⅱ』.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고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18, 『신라 왕궁 월성』, 특별전도록.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9,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특별전도록.
- 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특별전도록.
-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특별전도록.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한국의 고대목간』.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하)』, 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주류성.
- 도미야 이타루(冨谷至), 2005,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 윤재석 편저, 2022, 『한국목간총람』23,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 이승률, 2013,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1』, 예문서원.
-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 李均明, 2005, 『古代簡牘』, 文物出版社.
- 鬼頭清明, 1990 『木簡』,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今泉隆雄, 1978, 「貢進物付札의 諸問題」, 『研究論集Ⅳ』, 國立奈良文化財研究所.
- 大庭 修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 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1996 『長野縣屋代遺跡群出土木簡』.
- 김재홍, 2016, 「태안 침몰선 고려 목간의 문서양식과 운송체계」, 『한국중세사연구』47, 한국중세사학회.
- 김재홍, 2017, 「고대 목간, 동아시아의 문자 정보 시스템」, 『내일을 여는 역사』, 민족문제연구소.
- 김재홍, 2019,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목간과 문자』22, 한국목간학회.
- 김재홍, 2017, 「고려 출수 목간의 지역별 문서양식과 선적방식」, 『목간과 문자』19, 한국목간학회.
- 박중환, 1994, 「한국 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성」, 『국립공주박물관기요』2.
- 윤무병, 1984, 「木牌」, 『신안해저유물Ⅱ』, 문화재관리국.
-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23, 한국목간학회.
- 장기명, 2021, 「월성 해자의 조사 성과와 고환경 연구와의 접점」, 『신라문화』5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전경효,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묵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20, 한국목간학회.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3, 한국목간학회.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20,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두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00, 한국고대사학회.
- 岡内三眞, 1986, 「新安沈沒船を通じてみた東アジアの貿易」, 『朝鮮史研究會論文集』23.

최근 발견된 중국의 주요 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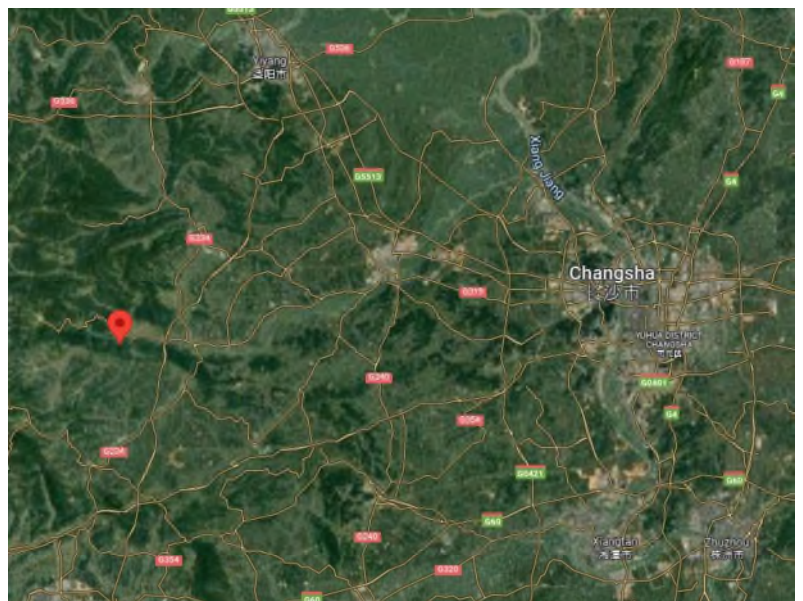
이주현(동아대학교)

호남 익양 토자산 출토 간독

- 지역성 속의 통일성, 그리고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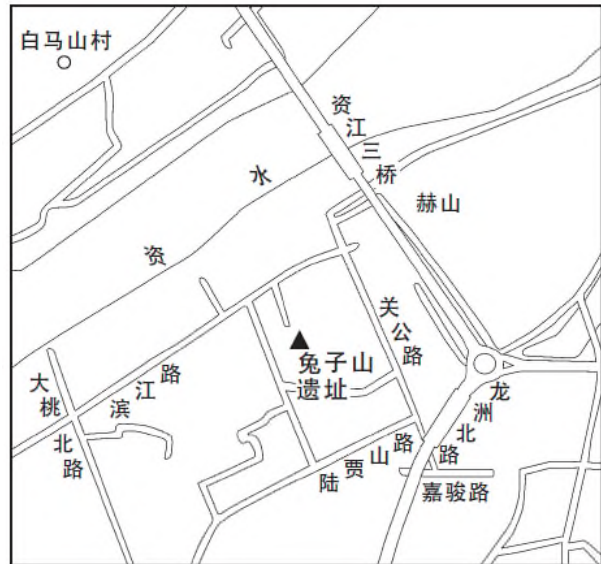
이주현
(동아대학교)

益陽 兔子山



益陽 兔子山 유지

- 발굴 시점: 2013년 5월~11월
- 총 14구의 폐기된 우물 중 11구의 우물에서 간독 발견
- J3, J7, J9에서 출토된 간독 다수 전한 말 / 전한 초 / 통일 진
- J9(2016), J7(2021) 발굴 보고



< J7 출토 간독 개관 >

張春龍·張忠煒, 「湖南益陽兔子山遺址七號井出土簡牘述略」, 『文物』 2021-6

- 총 2,392매의 간독 출토, 글자가 있는 간은 2,302간
- 단독 목간과 편리한 죽간
- 전한 초 長沙國 익양현의 문서 다수 (吳姓) 劉姓)
- 3~5층 간독은 대부분 여후 초기, 6~7층 간독은 혜제 시기에 해당
가장 이른 기년은 한 고조 11년(BCE 196)
- 발굴 보고서 출간 후 현재도 계속 공개 중

1. 행정, 법률문서

- 행정 문서: 장사국의 행정 기구 및 군현 설치 시점 확인
 - 장사국은 장사군 대신 內史 설치, 운용
(J7⑥:7, “丞相府內史府中尉府”)
 - 계양군의 설치 시점에 관한 단서 (J7⑦:305, “五年七月庚辰朔丙申, 內史陽謂觀川、桂 口便、茶陵、郴采錫, 西山、昭陵、冷道嗇夫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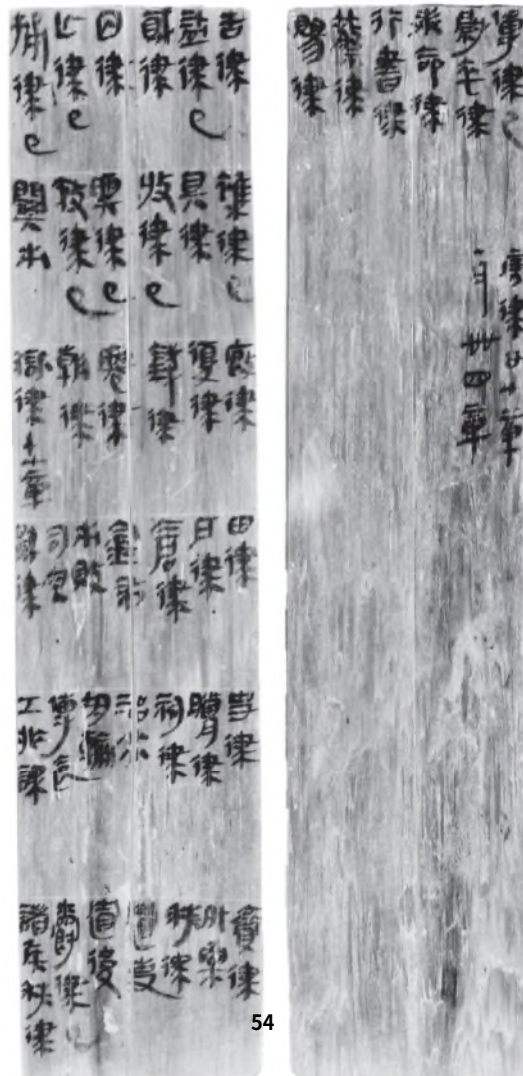


1. 행정, 법률문서

- 법률 문서: 전한 초 율령의 律名이 적힌 목牍 발견 (J7⑦:1, J7⑦:2)
- 길이 23.5cm, 너비 5.4cm, 두께 0.4cm

1. 告律	盜律已	賊律	囚律	亡律已	捕律已	
2. 雜律已	具律	收律已	興律已	效律已	關市	
3. 廄律	復律	錢律	遷律	朝律	獄律十七章	
4. 田律	戶律	倉律	金布	市販	司空	繇律
5. 史律	腊律	祀律	治水	均輸	傳食	工作課
6. 賁律	外樂	秩律	置吏	置後	爵律已	諸侯秩律

1. 傳律已	尉卒律	奔命律	行書律	葬律	賜律
2. 旁律廿七章	●凡卅四章				



1. 행정, 법률문서

- 한의 율령 체계에 관한 문헌 기록(『진서』「형법지」)과 반박
- J7⑦:1, J7⑦:2에는 ‘獄律’과 ‘旁律’의 구분 명확
ex. 수호지한간, 호가초장한간에도 ‘旁律’ 보임
- (1) 전한 초 형법적 요소 - 非형법적 요소(행정, 제도, 예제)의 **법률 체계** 존재
- (2) 율령은 한의 군현, 제후국에서 모두 시행

2. 개인 서신

J7④:30+J7④:43

“ □亥, 敬再拜獻書, 多問公孫佩母恙. 秋時, 不利御前者, 得毋有所不安. 大□□□□夫□獻書□□, 仆願以身□君且受□□丞主, 主□方□□不得. 仆有非敢上書君也, 願王孫匈、公孫佩□獲之, 因敢言道之. 過□再拜, 多問兩公孫. (A) 也, 敬再拜道之(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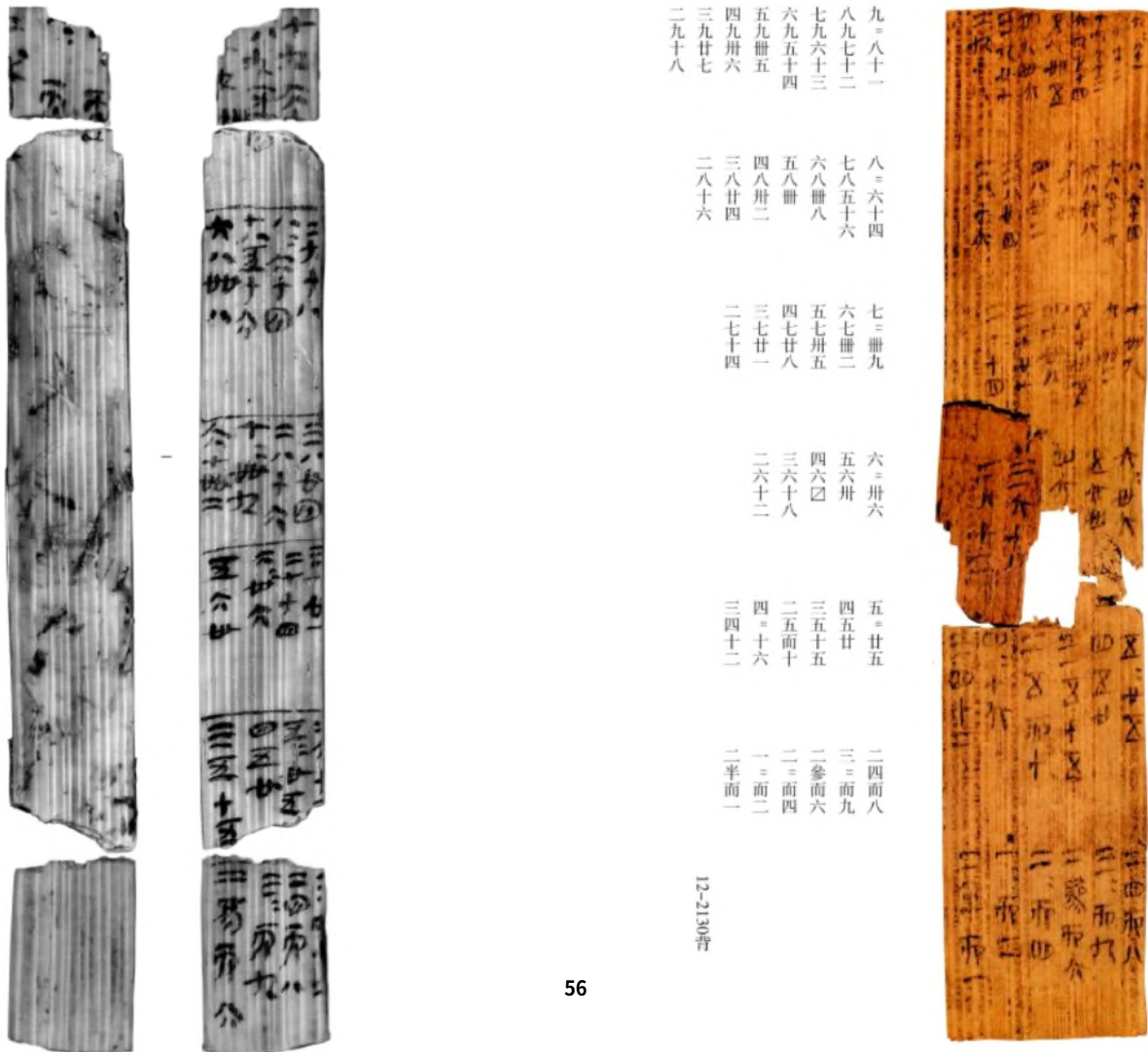
- 길이 46cm, 너비 1.5cm (=약 2척)이며 보존 상태 양호
- 문서의 수신자는 장사왕의 近侍?



3. 구구단표

J7⑤:1:328+J7⑤1:27+J7⑦:41

- 기본적인 형태의 구구단표로 보존 상태 양호
- 이야진간 J12-2131+J12-2130+J16-133과 배치 유사
- 선을 그어 제 1~6란을 표시한 것에 주목
- 제 6란에 적힌 2단의 경우 ‘而’가 보이거나 1~5란에는 ‘而’가 없음
(이야진간, 거연한간, 古人提漢簡과 유사)



< J9 출토 간독 개관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益陽市文物處, 「湖南益陽兔子山遺址九號井發掘簡報」, 『文物』 2016-5

- 총 9개의 토층으로 구성
- 주로 전국시대 말~秦 시기에 해당하며 간독과 진의 기물 출토
- 총 780매의 간독 출토, 글자가 있는 간은 579매
- 제 7층에서 출토된 죽간의 수량이 많은 편이나 원형 복원은 어려운 편

1. 진 이세황제 胡亥의 조서

J93.1

“天下失始皇帝, 皆遽恐悲哀甚, L 朕奉遺詔, L
今宗廟事及箸以明至治大功德者具矣, 律令當除定者畢矣. L 元年與黔首更始,
盡爲解除流罪, 今皆已下矣, 朕將自撫天下(A) 吏、黔首, L 其具行事已,
分縣賦擾黔首, 毋以細物荷劾縣吏, 亟布.
以元年十月甲午下, 十一月戊午到守府(B).”



- 간문에 체크 부호(ㄷ) 표시
 - 조서의 내용을 적은 서체와 문서 수령 기록을 적은 서체가 일치
- 이세황제 원년 10월 갑오일(21일)에 배포된 조서를 11월 무오일(15일)에 군 태수부가 수령하여 베낀 후 익양현에 전달

‘朕奉遺詔’ - 『사기』 「진시황본기」와의 **간극**
: 전래 문헌과 출토 문헌의 차이, 역사적 진실성, 양자의 적절한 이용 등의 문제 제기

2. 事卒簿

J㉔7.1~7.151

- 대부분 楚 문자로 기록한 죽간들로 장부의 일부
- 흠어진 상태에서 출토되어 복원이 어려웠으며 내용에 따라 순서 조정
- 내용상 익양현이 기록한 事(使)卒의 장부로 추측
(J㉔7.1, “事卒凡五十四人, 遠夕之月乙亥之日, □□□□不□將卒.”)
- 초의 행정 구역, 관직명, 달을 세는 표현 포함
- 전국 말기 초의 문서인가? vs 통일 진 초기의 문서인가?



图三〇 竹简
1. 七·四四 2. 七·四五 3. 七·四六 4. 七·四七

- 七·四四 芋州公苛□(图三〇:1)
七·四五 □谿公掇癸 □(图三〇:2)
七·四六 龔谿公宋□(图三〇:3)
七·四七 易事筭(图三〇:4)



图三三
竹简(七·一五一)

후반부(J⑨7.145~7.150)로 갈수록 진 예서에 근접

- J⑨7.150는 한 면에는 진 예서로 ‘郡縣’, 다른 면에는 초서로 서사
- 진 통일과 군현제 도입
- 진, 초의 문화 병존 → 진의 시스템으로 통합해가는 과정?

맷음말

- 익양 토자산에서 출토된 간독은 전국 말-통일 진-前漢에 이르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줌
- 지역성(楚 / 長沙國)이 반영되어 있으나, 동시에 통일성(제국 통치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출토 간독을 계속 공개 중이므로 고대 중국의 사법, 행정에 관한 풍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참고 문헌

- 張春龍·張興國, 「益陽兔子山遺址九號井出土簡牘概述」, 『國學學刊』 2015-4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益陽市文物處, 「湖南益陽兔子山遺址九號井發掘簡報」, 『文物』 2016-5
- 張忠煒·張春龍, 「漢律體系新論—以益陽兔子山遺址所出漢律律名木牘爲中心」, 『歷史研究』 2020-6
- 張春龍·張忠煒, 「湖南益陽兔子山遺址七號井出土簡牘述略」, 『文物』 2021-6
- 陳偉, 「《秦二世元年十月甲午詔書》校讀」, 簡帛網
(http://www.bsm.org.cn/?qinjian/6429.html#_edn1)
- 荊州博物館·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編,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選粹』, 北京: 文物出版社, 2021

감사합니다!

